

10명중 8명이상 투표, 보스톤 뜨거운 대선 열기

보스톤 재외선거 2688명 참여 투표율 81.3% 미국 1위
재외선거 전체 투표율 22만1981명, 71.1%
재외선거 사상 처음으로 실질투표율 10% 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에서 보스톤이 미국내 투표율 1위를 기록했다. 4월 30일 마감된 재외선거에서 보스톤에서는 2688명이 투표에 참여해 81.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 등록율에서도 보스톤은 선거예상인수 17,534명중 총 3,305명이 등록, 18.85%로 미주 본토내에서는 최고였다.

보스톤의 81.3% 투표율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3,542명의 등록유권자 중 2,369명이 투표한 총 66.9%에 비해 무려 15%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난 5월 2일 뉴욕 JFK 공항서 대한항공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송부됐다

4월 29일 토요일 하루만에 991명의 유권자들이 몰려 무려 1시간씩이나 기다리며 투표했다.

미국내 다른 지역의 경우 델러스가 79.4%, 샌스란시스코가 77.6%, 괌출장소 73.4% 순이었다. 미국 전체 투표율은 71.1%로 총 4만8487명이 투표했다. 18대 대선의 투표자 37,094에 비해 투표 총수SMS는 늘었지만 등록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71.6%로 오히려 줄었다.

전체 재외유권자는 29만1981명중 22만1981명이 투표에 참여, 총 7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15만8225명이 참석, 71.1%의 투표율을 보였던 18대 대선보다 6만3756명(40.3%)이 늘어난 것이다.

재외국민투표는 20대 총선에선 41.4%(6만 3797명), 19대 총선은 45.7%(5만6456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19대 대선 재외투표에는 재외선거예상인수 197만명 가운데 22만1981명이 참여해 재외선거 사상 최초로 실질 투표율이 11.2%를 기록했다. 현재 선관위가 집계해 발표하는 투표



19대 대선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한 엄마와 아이가 보스톤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함께 집어넣고 있다

율은 등록유권자에 견줘 투표자의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 영구명부제, 추가투표소 도입 등 투표편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는 미국 4만 8487명 (71.1%), 중국 3만 5352명 (80.5%), 일본 2만1384명 (56.3%) 순으로 높았다. 또한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시아주 10만6496명 (74.0%), 미주 6만

8213명 (71.7%), 유럽 3만 6170명 (84.9%), 중동 8210명 (84.9%), 아프리카 2892명 (85.4%)이다.

이번 19대 대선 재외투표지는 5월 2일 뉴욕 JFK 공항서 대한항공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송부됐다. 이 투표지는 한국에 도착하면 6일까지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9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editor@bostonkorea.com



한국 대선, 투/개표 상황 실시간 중계

▶▶1면에 이어서 시작화면에서 '19대 대선 생중계'를 클릭하면 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5월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안철수 후보(국민의당)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와 심상정 후보(진보정의당), 그리고 유승민 후보(바른정당)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디맨드코리아는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중남미 지역까지 드라마와 예능·다큐멘터리·뉴스 등 한류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단속 두려움 이민자, 사회안전망 이용 기피 늘어

자선기관, 병원, 무료 법률서비스도 꺼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7년 봄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이민자들은 트럼프의 강경 이민단속에 놀라 아주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가 4월 28일 보도했다.

도체스터 소재 이민자들을 위한 음식기부단체의 주차장에 이민단속요원이 잠복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부단체를 찾는 이민자들이 자취를 감췄다. 첼시에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민자가 추방 당할 수 있다는 염려에 접근 금지명령서를 발부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보스톤메디컬센터에서는 응급실을 찾았던 한 여성이 접수대에서 이름과 신분증을 요구하자 바로 병원을 떠나는 사태도 발생했다. 보스톤 메디컬 센터에서 이민과 난민의료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손드라 크로스비 박사는 “이민자들의 두려움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고 밝혔다.

가정폭력 상담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불법이민자 체포시 대응할 수 있는 이민자 권리에 대한 팸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보스톤 메디컬 센터는 환자들에게 이민신분과 진료기록은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크로스비 박사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병원이 안전하다며 설득한다.

이민단속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개월동안 보스톤에서 형사범이 아닌 불법이민자의 체포수가 무려 3배에 달하는 156명으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이민자들은 트럼프의 강경 이민단속에 놀라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로 증가했다. 또한 이민단속국이 미 전역에서 불체자 구류(detainer)를 요청한 사례가 22,161건으로 지난해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

이처럼 이민자 단속이 강력해지다 보니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도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고 있다.

그레이터 보스톤 카톨릭 자선단체 조셉 버니에카 디렉터는 보스톤 콜롬비아 로드에 위치한 단체에서 이민자들의 두려움을 목격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음식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알기 위해 수령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받고 있는데 이민자들은 이조차도 꺼려하며 매달 한 백씩 지급하는 야채 수령을 포기하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과거의 경우 야채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없다. 이들은 심지어 기차를 타는 것도 신

분을 몰을까봐 거부하고 있는 상태” 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로드의 자선단체에는 일반적으로 약 150여명이 야채를 받으므로 모였는데 최근에는 단지 31명만 모습을 보였다.

첼시 소재 가정폭력 구제 단체 하버코브(HarborCOV)는 매달 2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모임을 갖는데 평상시에는 약 15명이 참석했으나 최근에는 1-3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도 같은 패턴을 경험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에서 환자들이 법적 질문이 있을 경우 이들을 상담해주는 인권 및 경제정의 변호사회의 변호사들은 최근 들어 방문자들의 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불체신분만으로 체포 트럼프 정권 두배 꺾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트럼프가 취임한 후 2달간 불법이민단속이 32.6% 꺾춤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대상을 단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서류미비자(불법체류신분)까지 넓힌데 따른 결과다.

워싱턴포스트의 4월 보도에 따르면 미이민단속국은 3월 중순까지 총 21,362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6,014이었다. 문제는 범죄기록이 없는 이민자 체포다. 불법이민자라면의 이유로 단속된 이민자들은 5,441명, 지난해에 견주면 두배가 넘는다.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체포된 이민자들의 4분의 3은 유죄합의를 받고 있는 불법이민자들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5%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단지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체포된 이민자의 수는 200% 내지 300% 증가했다.

불체 신분만을 이유로 가장 많은 이민자를 체포한 곳은 애틀란타. 애틀란타의 이민단속국은 불법체류만을 이유로 700명을 체포했다. 지난해 137명 체포에 비해 폭발적 증가다. 필라델피아 이민단속국은 지난해보다 6배나 높은 356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 증가율에서 선두를 달렸다.

가장 많은 이민자를 체포한 곳은 달라스로 2,000여명이 넘는다. 오클라호아, 애틀란타, 캐롤라이나, 휴스턴 순으로 이민자 체포가 많았다.

editor@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JULY 10 - JULY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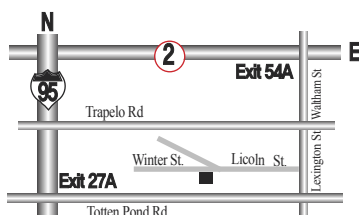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국제선교회 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는 5월 20일 토요일 매사추세츠 와드힐(Ward Hill, MA) 소재 디버로스 펑크션 홀에서 연례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갖는다.

해마다 5월이면 국제결혼가정선교회가 개최하는 기금모금만찬 행사는 국제선 회원들의 쉼터인 평화의 마을 건설과 2세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국제선 김인숙 회장은 “짧은 한세 상사는 동안에 서로 작은 힘을 모아 불우한 이웃을 도우는 일에 동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말하고 “여러분들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맛있는 디너와 흥겨운 음악 그리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준비하고 푸



국제선교회 회원들 모습

짐한 선물도 준비 하고 있다. 꼭 참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했다.

기금모금만찬에 대한 문의는 유영심 978-994-5490, 최정숙 978-902-1111, 황진희 508-685-4267, 김인숙 978-

828-1383 씨 등에게 할 수 있다.

장소: DiBurro's Function Hall Facility (887 Boston Rd, Ward Hill, MA 01835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봄 정기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5월 6일 토요일 뉴햄프셔 워터빌밸리 소재 웰치앤딕키루프(Mt. Welch&Dicky Loop / 약 2700ft) 으로 정기산행을 나간다.

이번 왕복 산행 거리는 4.5마일이며 산행시간은 약 3.5-4시간이다. 난이도는 3으로 보통이다.

봄산행이지만 여전히 해빙되지 않아 준비물은 트레킹 폴스, 아이젠(Microspikes 또는 Crampons)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배낭, 등산화착용, 방한

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 고글, 스틱, 식수, 간편한 중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집결지는 올스턴 공영주차장(오전 6시 30분)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7시 1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이날 시간 계획은 9시 30분 트레일입구에 도착해 9시 45분에 산행을 시작한다. 12시 30분 정상에 도착해 중식을 하고 1시에 하산을 시작한다. 오후 3시 하

산을 완료한 후 오후 5시에 셸럼 주차장에 도착한다는 계획이다.

산행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A,B,C 중 원하시는 조와, 집결지 선택(Allston or Exit 2) 차량운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연락 전화를 남겨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978-569-3256(김상호)로 할 수 있다. 날씨 관계로 산행지 변경 및 취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한미문화재단 2017 봄 콘서트 6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 문화재단 (KACF - 이사장 김문소)은 5월 6일 토요일 7시부터 뉴튼센터(Newton Center)에 위치한 뉴튼 퍼스트 뱍티스트교회(First Baptist Church in Newton)에서 2017년 봄 콘서트를 개최한다.

봄 음악회는 “Spring Awakening” (봄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첼리스트 배유미와 가야금연주자 김도연이 프로그램을 만든 특별한 음악회다.

입장료는 \$25 (학생 \$10) 이며 KACF 웹사이트 www.koreancultureboston.org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미리 구입하실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이메일 info@koreancultureboston.org로 할 수 있다.

일시: 2017년 5월 6일 (토), 저녁 7시

장소: First Baptist Church in Newton (848 Beacon St, Newton, MA 02459)

bostonkorean@hotmail.com

박지혜 작가의 '피어리스' 연극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연극 배우이며 희곡 작가인 박지혜의 '피어리스 (Peerless)' 가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카플리 스퀘어에 위치한 보스톤 공립 도서관 라브 홀 (Rabb Hall) 에서 공연된다.

2015년 예일 극장에서 초연을 했으며, 배링턴, 시카고, 캘리포니아에서 공연되고 보스톤에 처음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컴퍼니 원 극단이 보스톤시의 셰익스피어 400주년 기념에 맞추어 보스톤 공립 도서관

과 협조로 이루어 진다. 입장료는 기부금으로 받으며, \$10을 추천한다.

특히 5월 6일 (토) 오후 2시 공연에는 작가 박지혜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연 후 관객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컴퍼니 원 극단은 소수민족의 희곡을 무대에 올리는 취지로 창립됐으며 주정부의 아시아 아메리칸 위원회 회장인 엘리사 최가 이사이기도 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행사기간
5월 21일까지

가정의달 사랑 이벤트

천녹삼 구매시
홍삼정 30g & 천녹삼 30g 무료증정

홍천웅, 화애락, 톤골드, 톤마일드
홍이장군 1~4단계, 아이패스

구입시

에브리타임 10포
10포 증정
\$35 상당
or
홍삼정 30g 증정

10% OFF
동인비
전제품

**에브리타임 10포
or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H MART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주문후 1~2일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FedEx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비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일본 페스티벌 건재

참가인원은 줄었지만 기관 및 단체 참가는 늘어
학생들 적극 참여, 민관 협력이 성공 개최 비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일본 페스티벌(Japan Festival)’은 추위와 비가 내리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일본 문화 팬들의 지지속에 막을 내렸다. 나쁜 날씨 탓에 관객 수는 작년에 비해 1/3 가량으로 줄었지만 104개의 단체 및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작년 90개의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 7일 보스톤 커먼에서 개최된 제 6회 일본 페스티벌은 50도의 쌀쌀한 날씨와 두 차례의 비라는 악재가 겹쳤다. 작년 6만 명의 관객을 기록했던 점 것과 올해들어 참가단체 수의 증가로 올해 축제를 기대하게 했지만 약 2만여 명의 관객에 그쳤다. 하지만 오후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빗속에서도 대부분의 관객들은 떠나지 않고 주변 부스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열의를 보였다.

중앙무대와 후면 무대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행되었다. 밴드, 제이팝댄스, 김도, 기모노 패션쇼 등의 문화 공연과 일본행 항공권을 건 추첨, 코스튬대회, 퀴즈대회 등이 열렸다. 다른 편에 마련된 워크숍 부스에서는 다도와 종이 접기, 전통춤 배우기 코너 등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연년 축제와 마찬가지로 푸드코너는 관람객들의 가장 인기를 모았다. 유메오 카타레, 산토카, 오가와 커피, 비어드 파파 등의 보스톤 지역의 유명 일식 레스토랑이 참가한 올해는 작년보다 7업체가 늘어난 30개 업체, 37개 부스로 차려졌다. 이들은 일식 라멘, 카레, 돈가스, 닭꼬치, 주먹밥, 슈크림, 일본차 등을 판매해 관람객들은 한 곳에서 다양한 일본 음식을 즐기는 즐거움을 누렸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은 올해도 일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보스톤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쇼와 여자 대학 250여 명의 학생들은 자원봉사로 참가해 축제의 원활한 일정을 도왔다. 이들은 축제의 스태프 역할 뿐 아니라 일손이 모자란 푸드코너와 일반 부스의 진행을 도왔다.

보스톤 마라톤 결승선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치워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일본인 봉사단체 ‘그린버드’는 이날도 보스톤 코먼 곳곳의 쓰레기를 실시간으로 치웠다. 일본 페스티벌 스태프인 오제키 케니 씨는 “작년까지는 이벤트가 끝나고 쓰레기를 치우느라 고생했는데, 올해는 그린버드가 바로 치워주니 정말 좋았다”며 극찬했다. 쿠보 나오(유학생) 그린버드 보스톤 지부장은 “마을이 깨끗하면 사람들



이소무라 케이코(PR담당, 사진 우측에서 두번째)씨는 일본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이유에 대해 민관의 협동, 단기 거주자가 많은 커뮤니티, 그리고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의 참여를 꼽았다

이 더 살기 좋아지고, 함께 마을을 청소하며 지역주민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페스티벌의 PR담당 이소무라 케이코씨는 일본 페스티벌이 적은 일본인 수에도 불구하고 보스톤의 대형 연례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단기거주자가 많은 일본인 커뮤니티의 특성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산토카의 마케팅 매니저이기도 한 그는 “단기거주자들은 미국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야 할 장기거주자들보다 모국에 대한 애착심이 크고, 일본인

의 수가 보스톤에서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보다 모국(일본)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영사관과 일본 기업들도 일본 문화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일본을 좋아하게 된 외국인들도 일본인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뉴잉글랜드 지역 글짓기대회 성황리에 개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NAKS-NE) 주최 7개교 90 여명 참가, 한국학교서 배운 글솜씨 펼쳐다
전체 대상 퀴지한국학교 최예빈 학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NAKS-NE, 이하 협의회)가 주최한 글짓기대회에 90여명의 한국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체험했다.

4월 29일 토요일 엔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 한국학교에서 열린 2017년도 글짓기 대회는 각 학년 별로 프리컨터(pk)에서 10학년까지 모두 12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대회 시작 종과 함께 받은 2개의 제목 중 하나를 선택, 글을 썼다.

심사는 각 학교와 외부에서 추천된 심사위원들이 세부 항목 별로 점수가 배정된 심사표에 의해 채점하고 이에 미국 거주기간 점수가 더해져, 총점에 의해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 측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다수의 학생이 수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상을 받은 학생은 총 51명이었다. 협의회는 9학년 이상 고학년의 최고 득점자를 다시 심사하여 전체대상인 총영사상을 수상자로 퀴지한국학교 최예빈 학생을 선발했다.

전체 대상을 심사한 신영 작가는 “이순신장군에 대한 글을 쓴 최예빈 학생은 우선 주어진 지정 제목 (내가 존경하는 인물)에 자신의 독창적인 제목을 부제로 붙이고, 장군의 전략, 거북선 발명 등의 업적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장군의 성품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여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글짓기 대회에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한국학교, 밀알한국학교, 북부보스톤한국학교, 천주교한국학교, 퀴지한국학교,

한마음한국학교 등 7개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글짓기 대회를 격려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20여명의 지역단체장 등, 총 20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 김인숙 국제결혼 가정선교회 회장,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 회장, 한윤영 보스톤 민주평통 고문, 이경혜 시민협회 회장, 조진행 과기협 회장, 권정자 한미노인회 부회장, 김태경 연세대 동문대표, 이기환 중앙대 동문회장 등이 수상자들에게 트로피,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한순용 협의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감독과 심사를 맡은 각 학교 교장과 교사, 인솔해 오신 학부모, 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협의회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동안 한국학교에서 배운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펼쳐 줄 것을 참가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엄성준 보스톤총영사는 축사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커서 영어도 알고 한국어도 알아, 미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코리안 아메리칸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이 좋은 관계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글짓기 대회를 통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커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미아 협의회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다. 한국어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그리고 심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7 글짓기 및 말하기대회는 김현주 협의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 ▶▶7면으로 계속



4월 29일 북부보스톤 한국학교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지역 글짓기 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가졌다



글짓기 대회 대상인 보스톤 총영사상을 수상한 최예빈(퀴지한국학교) 학생과 상을 수여한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 그리고 한국학교 협의회 윤미아 이사장, 한순용 회장, 그리고 김현주 부회장(사진 좌측부터)



글짓기 대회전 실시된 퀴즈시간에 학생들 대부분이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bos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프린터 과정의 학생들(사진 왼쪽)과 킨더 과정의 학생들이 글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

▶▶6면에 이어서
됐다. 글짓기 심사 및 수상자 선정시
간 동안 한국어 관련 퀴즈게임을 하면
서 상품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들은 대다수가 손을 들어 자신이 생각
한 답을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학교 졸업생들이 한국학
교를 다니며 배운 지식과 경험이 사회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 상영되

었다.
2시부터 시작된 대회는 7시반이
되서야 끝났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일부 수상자들이 귀가해 직접 상을 받
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
이들에게 대회가 '즐거운 추억' 으
로 남기 위해서는 글짓기 대회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는 의견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5월 27일 Natick에 있는
Cochituate State Park 에서 그림그
리기대를 개최한다. 행사에 관한 문
의는 한순용협의회 회장 (soony-
han03@gmail.com), 박지애 총무
(kjkjfields@gmail.com) 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의 꿈 말하기대회에서 밀알한국학교의 박정민학생(좌)이 <말로 세상을 바꾸자!> 라는 제목의 발표로 대상을 수상했다. 뉴잉글랜드한국학교의 김수경학생(우)은 <나는 김수경답게 살고 싶습니다>란 제목으로 발표해 협의회장상을 수상하였다

글짓기대회 수상자 명단

*전체 대상: 최예빈 (퀸지) - 총영사상 (엄성준 총영사)	3학년 대상: 이준호 (뉴잉글랜드) - 중앙대학교 동문회 (이기환회장) 1등: 이세라 (한마음) 2등: 이지환 (천주교) 3등: 한예린, 김다연 (뉴잉글랜드)	1등: 서기은 (뉴잉글랜드) 2등: 박정원 (밀알) 3등: 박현우 (뉴잉글랜드)
PK 대상: 노윤 (뉴잉글랜드) - 한미노인회 (유영심회장) 1등: 한지나 (뉴잉글랜드) 2등: 기예성 (뉴잉글랜드) 3등: 장건 (뉴잉글랜드)	4학년 대상: 최윤아 (뉴잉글랜드) - 고려대학교 동문회 (이태호회장) 1등: 서예린 (뉴잉글랜드) 2등: 노진 (뉴잉글랜드) 3등: 김서연, 최서경 (뉴잉글랜드), 안예지(북부보스턴)	8학년 대상: 이수진 (천주교) - 세계 무역인 보스턴지부회 (안병학회장) 1등: 최유민 (뉴잉글랜드) 2등: 김지우 (밀알) 3등: 이상재 (뉴잉글랜드)
K 대상: 주사랑 (뉴잉글랜드) - 국제가정결혼선교회 (김인숙회장) 1등: 이인우 (천주교) 2등: 윤도현 (뉴잉글랜드) 3등: 정명우, 정태민 (뉴잉글랜드)	5학년 대상: 이해린 (뉴잉글랜드) - 이화대학교 동문회 (김지영회장) 1등: 이샘 (한마음) 2등: 김효린 (한마음) 3등: 이수연 (뉴잉글랜드)	9학년 대상: 정기려 (뉴잉글랜드) - 시민협회 (이경해회장) 1등: 정기채 (뉴잉글랜드) 2등: 박현지 (뉴잉글랜드) 3등: 박형은 (뉴잉글랜드)
1학년 대상: 박단비 (뉴잉글랜드) - 뉴햄프셔 한인회 (조은경회장) 1등: 최서연 (한마음) 2등: 오재인 (뉴잉글랜드) 3등: 박준영 (뉴잉글랜드)	6학년 대상: 정동현 (뉴잉글랜드) - 한양대학교 동문회 (서민원회장) 1등: 전해나 (뉴잉글랜드) 2등: 김수지 (뉴잉글랜드) 3등: 황성현 (뉴잉글랜드)	10학년 대상: 김수경 (뉴잉글랜드)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지부 (한선우) 1등: 박정민 (밀알) 2등: 조항준 (뉴잉글랜드)
2학년 대상: 이지윤 (뉴잉글랜드) - 연세대학교 동문회 (김준구회장) 1등: 김시현 (천주교) 2등: 기예린 (뉴잉글랜드) 3등: 이가빈 (뉴잉글랜드)	7학년 대상: 채민아 (뉴잉글랜드) - 재미 과학기술자 협의회 (조진행회장)	**나의 꿈 말하기대회 대상 : 박정민 (밀알) 협의회장상 : 김수경 (뉴잉글랜드)

박정민,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우승

김수경 학생은 한국학교 협의회장 상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2017년 나의 꿈 말하기대회에서 밀알
한국학교의 박정민학생이 <말로 세
상을 바꾸자!> 라는 제목의 발표로 대
상을 수상했다. 뉴잉글랜드한국학교의
김수경학생은 <나는 김수경답게 살고
싶습니다>란 제목으로 발표해 협의회
장상을 수상하였다.

29일 북부보스턴 한국학교 글짓기
대회 심사시간을 이용해 개최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는 박정민학생과 김
수경 학생 2명이 출전해 발표했다.

박정민 학생은 한 때 연예인이 꿈이
었던 순간을 표현할 때 <오빠 사랑해>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사용했고, 또 안
경 및 노트 필기 도구 등을 준비해 적
절하게 사용해 관중들의 시선을 집중
시켰다.

김수경 학생은 자신의 이름과 관련
해 평상시 겪었던 일과 진심으로 사랑
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 한국인이며 한

국말을 잘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 졌다
는 내용을 차분하게 발표했다. 다만 발
표 도중 잠깐 멈췄던 순간이 있었던
것이 아쉬웠다.

김수경학생과 박정민 학생은 경쟁
의 순간이었지만 서로의 발표에 대해
격려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나의 꿈 말하기대회는 명정호협의
회 부이사장, 신영 작가, 함해란선생이
심사를 맡았다. 대상 수상자 박정민 학
생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대상이 주어졌다는 심사위원들의 평
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는 영상을 통해 다른 지
역협의회 대상 수상자와 경합을 벌인
후, 6명이 학술대회에서 본선 무대에
나가게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2017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1

[총영사상]

존경하는 인물

(끝날때까지 끝을 내지 않은 장군)



퀸지 한국학교
10학년

최예빈

그동안 이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꿈을 향해 달려왔지만, 어떤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까?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용감하고 포기하지않은, 온전히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기억합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남겨주신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영원히 마음속에 큰상처가 남아있을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몇백년전에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을때요. 당시 현재 대한민국 보다 훨씬 형편이 좋지 않았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했을 때 일본이 우리 나라를 조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은 좌절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이런 좌절과 힘들, 어려움속에서도 더욱더 단단히 마음을 먹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시고 희생해주심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순신 장군은 강한 기술을 이용해 일본과 바다위에서 공격할 때 이길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배도 많이 없었고 무기도 훨씬 없어서 무척 불리한 상황이었습니. 물위에서 서로 공격할 때, 많은 국민들은 이미 포기하고 끝을 예상 했습니다. 당시 나라에서는 배가 13대 밖에 없었지만 일본은 무려 10배나 되는 133개에 배를 갖고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상이 되는 싸움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절대 포기하지않고 힘껏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당당히 존경할 수 있는 한가지 이유는 바로 넘치는 자신감입니다. 많은 절망과 아픔속에서도 이순신 장군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싸웠습니다. 싸우면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다른 장군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리고 열심히 힘내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공경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속에서도 정신적으로 버텨내기도 했지만, 많은 기술을 사용해 결국엔 훨씬 강력한 일본을 물리칠수있었습니다. 장군님은 다른 배

들 포함한채, 거북선 으로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이 거북선과 장군님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소품이나 아이템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상 장 할 수 있는 위대한 배를 만들어 현재도 많은 사람들에 관심과 존경을 받곤 합니다. 이 배는 온전히 한국 배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배 위로 올라와서 공격할수 없게끔 거북이 모양으로 기발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이 배가 훌륭하게 만들어 지었지만, 그래도 일본에게 덤비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끝없는 힘듦속에서도 장군님은 끝까지 포기 하지않고 좌절 하지않는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 낼수 있었죠. 이또한 장군님을 존경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려움속에서 보기 드문 리더십가 버텨내는 정신을 이순신 장군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존경 받을 만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리더쉽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나라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며 목숨까지 받쳐줬죠. 쉬운 싸움이 아닐걸 알면서도 한국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어려운 싸움을 향해 직진 하셨죠. 이런 넘치는 열정과 희망으로 이순 장군은 조선의 배는 건들지 않은채 일본에 많은 배들을 물리쳤죠. 13대에 배는 거의 흔들림 없이 무사히 버텨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기 때문에 존경 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물을 기억하고 존경하려면, 그 인물을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나 캐릭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넘쳐나는 자신감, 그리고 희망이 결국엔 일본에 배들과 싸울수있게 이끌어주었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훌륭한 기술로 거북선을 완성시켰고, 한국에 대한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겹게 싸우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일본을 싸운 이유로, 충분히 우리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인물입니다.



이번 글짓기 대회의 심사위원들

[PK 대상] 엄마

엄마 예뻐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도워줘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노윤



기분이조아요
엄마고 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K 대상] 우리가족

목소리가예쁜 엄마.
목소리가 신는 아빠.
한국에서 온 할아버지.
한국에서는 할머니.
그리고 예쁜 나.
우리는 가족이지.
아빠는 노래를 자라고
엄마는요리 를 자라고
할아버니 는똑똑박사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주사랑



할머니는 밥도잘먹고
게임은 자라는 나!
나는 우리가족이 좋다!
우리가족!
그리고 엄마는 좋고
아빠도 좋고
할아버지도좋고
할머니도 좋고
나혼자도좋고

나우리 가족
이너무종다
우리는같이살자!
나는 누구랑살가
우리가족이지!
난우리 가족을데
우리 가족이 더더조아

[1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는 좋아하는 음식이 만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은 당근, 토마토, 옥수수, 김, 부르콜리, 콩, 시금치, 밥, 반찬, 사탕 하고 과일이에요. 왜 저런 음식들을 좋아하나면, 너무 맛있으니깐요! 다, 핏자도 좋아하지.
저는 핏자도 좋아해요! 나는 음식들이 상아면 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박단비



어해요.
공평이 도 있으면, 업천 업천 신어해
요. 왜냐면 음식 못 먹고 낭비예요. 나는 왜 음식 좋아하는지 아라요?
왜냐면 몸에 건강하니깐요!
음노수도 좋아해요.

▶▶9면으로 계속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아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 2월 28일)

“성업 중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 5 Stars Reviews
> 저렴한 Tuition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artwithc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연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과 예술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트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ell: 310.985.3737(미술 수업 상담)
(강사 :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na76@gmail.com

(한국어 문자 가능)
781.729.8868

SHALOM DENTISTRY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2017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2

▶▶8면에 이어서

[2학년 대상] 받고 싶은 선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지윤



저는 강아지를 받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싫태요. 강아지의 얼굴이 귀엽고 푹푹한 강아지를 받고 싶어요. 이름은 Biscuit이고 말티푸라는 강아지였으면 좋겠어요. 작고 안 무거웠으면 좋고 말을 잘 듣는 강아지면 좋아요. 강아지가 집에 있으면 느낌이 더 집 같은 기분이 들것같아요. 경감하고 부드러운 좋겠어요. 같이 자고, 놀고, 같이 배우고, 그러면 재

미있을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못 하면 강아지가 나를 사랑해서 도와주고, 강아지가 무엇을 잘 못하면 내가 도와주면 신이나고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그리고 아빠가 그것을 몰아요. 그것을 어떻게 몰는지! 몰라요. 강아지도 몰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강아지를 사 주세요!

[3학년 대상] 내가 동물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준호



“안녕 새야! 안녕 토끼야!” 내가 이렇게 동물에게 말할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 보고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동물에게 물어보고 싶은게 너무 많아 무엇을 물어볼지 생각이 안나요. 나는 토끼에게 “야, 넌 왜우리 채소 밭에있는 상추를 훔어 먹니?” 라고 물어 보고 거북이에게는 “넌왜 느리게 엄금엄금 다니니?” 라고 물어 볼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궁금하지만 한번만 기회가오면 나는 무지 물어보고 싶은게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토끼는 토끼 끼리만 말할수 있고 새는 새끼리만 말할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볼때는 대화를 안하는 것 같고 혼자 있을 때 대화를 같이 할까요? 그리고 동물이랑 대화를 할수 있다면 사랑하고 동물은 벌써 친구일걸요. 왜냐하면 동물이랑 대화를 할수 있다면 대화를 나누 면서 친하게 될수 있기 때문이예요. 진짜로 이렇게 동물이랑 말을 나누며 친구를 만 들수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요?

[4학년 대상] 내가 가장 기뻐할 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최유나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기뻐나요? 가족 여행을 할 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때? 태어나서는 기쁜 일이 많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가장 기뻐할때가 태 권도를 할때예요. 저는 태권도를 할때가 왜 제일 좋냐면 일주일동안 화가 났던지, 슬펐던지, 기분이 안좋았을 때 일을 기억하면서 발차기와 기압을 하며 화를 풀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화난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을 기억하고 발차기를 할때마다 마침 그 사람을 차는 느낌이 들고, 또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을 돌려차기 하나에 마음이 “핑!” 하고 답답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태권도를 할 때 가장 기쁜 이유는 엄청 친절하신 태권도 선생님과 제 친구들이 있어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게는 태권도가 항상 즐거웠어요. 친절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기압하 라면 우리 모두들 “아!!!!” 외치고, Sparring(싸우는 것) 을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누구와 짝을 지 어 주실까 궁금해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를 항상 웃게하고 즐겁게 해 주시니까 더욱 재미있는 것 같 아요. 저는 태권도가 저를 가장 기쁘게 해 줘서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태권도를 시켜준게 가장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엄마!”

[5학년 대상] 친구가 고마웠을 때 (우리는 바늘과 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혜린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아세요? 나 처럼 목소리 크지만 여전히 웃기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건 바로 내 단짝 에밀리예요. 우리는 처음에 2학년 때 만났어요. 에밀리는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었어요. 내 옆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에밀리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여자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학교 점심은 어떻게 사 먹는지 등 에밀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늘과 실 처럼 아주 친하고 사이좋은 베프가 되어 신나는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격도 닮았어요. 취침 시간마다 우리는 정신 없게 뛰어놀고 그네도 신나게 타고 재미있는 상상 놀이도 했어요. 에밀리는 상상 력도 좋아서 나에게 많은 웃긴 이야기를 해주고 나는 들 으면서 깔깔되며 웃었지요. 어쩔 때는 점심시간 때 수다 떠느라고 점심도 다 못 먹

고는 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되서 우리는 똑 같은 반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서 에밀리가 이사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뭐? 에밀리가 이사를 간다고?!” 나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괴로워 했어요.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던 내 단짝인 에밀리가 떠나다니... 다행히 에밀리는 멀리로 이사 가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에밀리를 언제든지 볼 수있어요. 하지만 에밀리가 내 인생에 없었으면 내 학교 생활은 그렇게 신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교실로 들어가면 나보고 따뜻한 미소로, “헤린이! 반가워.” 라고 누구도 안 했을 것이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에밀리를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행복 해요. 나는 에밀리가 내 단짝이어서 언제든지 감사하고 더욱 더 행복해요. 나를 위로해주고, 슬픔과 행복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6학년 대상]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정동현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네소원은 돈을 100조 주라고 합니다. 외나 하면 새 비싼 차를 살 수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족 이 새차가 필요해요. 저는 비싼 좋은 차가 워낙대 엄마 가 안된대요. 엄마 랑 아빠 는 혼다 아니면 토요타 를 산대요, 저는 패러리 아니면 테스라 가타고싶은데,그래서, 돈이 많으면 제가 사고 싶은차를 살수있어요. 돈이만은게 싶은 따른 이유는, 제가 사고싶은 비디오 게임 장남감을 다 살수있으니까요. 저는 맨날 장남감 가게 가면, 엄마 가 장남감 하나만 살수있데요,근대 저는 사고 싶은 장남감 이 너무많아요. 비디오 게임 사고 싶을 때도 또갔대요. 제가 사고 싶은 비디오 게임은 60불 해요. 그래서 비디오게 임 을 1년 에 2번씩 사줘요. 제엄마는 비디오게임 하나만사세요. 사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돈이 많으면제가 사고 싶은 거 다 살수있자나요.돈 걱정없이. 돈이만은게 싶은 마지막 이유는 돈없는사람들이랑 아프리카 사람들을 돈주고 더 잘살게 할수있으니까요.말

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돈이없어서 잘못살아요.제 가돈 이 많으면 제가많은 돈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주고 잘 살게 할수있으니까요.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내소원을 들어준다면 암을 없앨 수 있는 약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있습니다. 암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아파 하고 고생을 많이합니다.이사 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사람이 암 때문에 아파안마음에 죽는거보기 실잔아요.암을 없앨 수 있는 약이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수있잔아요.이거 때문에 제 소원은 암 을 없앨 수있는 약 이다.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내소원을 들어준다면, 제갈 더 힘이센거입니다. 이 소원 이 제마지막 소원 입니다. 저는 힘이 많이없어서 스포츠 를 잘 못 합니다. 힘이 더쎄면 야구, 테니스, 볼링 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이데요.힘이 쎄면 엄마 랑 아빠가 드는 무거운 짐을 엄마랑 아빠데신 에 제가들수있으니까요. 알라딘의마술램프가 내소원을 들어준다면,

▶▶10면으로 계속

형제 떡집

GRAND RE 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메사츄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2017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3

▶ 9면에 이어서

[7학년 대상]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채민아



하루에 6시간은 기본, 숙제가 많은 날에는 8시간. 인터넷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요즘, 숙제를 다 컴퓨터나 휴대폰에 할수있어서 집에 가면 하루종일 컴퓨터 화면 앞에서 앉아, 숙제하고 게임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 매일 쓰는 인터넷이 없다면 나의 하루가 얼마나 바뀔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들과 메시지를 하면서, "너, 무슨 꿈 꾸었어?" 아니면 "오늘 기분 어때?" 을 자주 묻는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친구들과 연락을 못 해서, 아침밥 먹으면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것 같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원래 인터넷을 쓰는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성적도 오르면서 아는 것들이 많아져서 더 똑똑해 질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아침에 인터넷을 사용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적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인터넷을 많이 쓰고 있다. 컴퓨터에서 시험을 볼수있고, 공부도 할수 있어서, 7시간 30분을 다니는 학교에 그 시간의 반 정도 인터넷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가 없었다면 공부랑 시험을 다 종이에다가 해야해서 손이 아플 것 같지만 인터넷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눈이 아파서 인터넷 대신 종이를 쓴다면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고 공부를 편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숙제를 컴퓨터에서 한다. 그래서 나의 책상위에는 종이, 책, 그리고 연필이 하나도 없다. 팔랑, 컴퓨터 하나, 그리고 나의 소중한 휴대폰 밖에 없다. 인터넷이 없다면, 컴퓨터 대신 선생님께서 종이에 있는 숙제를 주시겠지? 나는 책상이 깨끗해서 좋지만, 수업 자료를 잘 못 외워서 힘들때도 있다.

"종이에다가 수업 내용을 쓰면 외우기가 훨씬 쉽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읽은 블로그에 나와 있었다. "손이 글씨 쓰는 연습을 할수 있어서, 종이에 노트 쓰는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다." 그럼 나도 인터넷을 사용을 안 한다면 더 똑똑해질까?

그리고 자기 전에 나는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한다. 그래서 새벽 2시쯤에 자게 된다.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 자기전에 휴대폰 대신 책을 읽을 것 같다. "자기전에 30분 동안 인터넷을 쓰지 마세요." 블로그에서 읽었다. "자기전에 책이나 글을 쓰면 잠을 훨씬 더 잘 잘수있어요."

나의 하루를 보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간이 참 많다. 인터넷 사용을 주리거나 아예 쓰지 않으면,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머리가 더 좋아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가 쓰는 인터넷 시간을 주리고 싶다. 가족과 이야기 나누며 웃고, 친구들과랑 밖에 나가서 축구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여러분도 인터넷 시간을 즐겨 봅시다!

[8학년 대상] 시험 없는 학교가 있다면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이수진



시험, 시험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들으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어는날 시험이 학교에서 없으면 좋은 것들보다 안좋은게 더욱 많이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대로는 시험이 있는이유가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몰르는 차이를 알수있을려고있는이유인것 같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선생님들도 무엇을 더 잘 가르쳐야 하는지 알수있고, 학생들의게도 유리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수있습니다.

그러지만 시험이없으면 편리한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시험공부해라" 라는 잔소리를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를 안해도되니깐 스트레스도 덜싸이고 밤늦게 까지 공부를 안해도 될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통해 자기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틀리면 배울수도있고, 무엇을 몰르는지 구분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할수있습니다. 실수를 통하여 더좋은 사람이 될수있고 많이 배울수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더 잘 가르쳐줘야하는지 그분을 할 수 가있었고, 어떤 학생이 힘들어 하고 있고 어떤학생이 잘하고있는지 더잘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움이 필요하는 학생을 도와줄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수학에서 하는 질문들을 다 이해했는줄 알았는데, 시험점수가 70점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저는 제가 몰르는 것을 배울수있었고, 선생님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을 깨달아서 도와 줄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더욱 배울수

입니다. 제가 수학시험이 없었으면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냥넘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살았으면 잘못배운것뿐만아니라 제 자신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지금 현재에는 편리하고 좋을수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좋지안습니다. 귀찮은것들을 살면서 해야되고 배우는것도중요합니다.

시험이 학교에서 없으면 선생님들한테 더욱 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지를 안 만들어도되고,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음에 학생들이 무엇을 틀리고 맞았는지 안 써도 되서 더욱 시울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것이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도움도 주지만, 더큰 뜻이 뒤에 있는것 같습니다.

살면서 하기싫은 것을 해야하고, 자기가 틀린 것들이있으면 인정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고 답이 무엇인지 몰르겠으면 도움을 찾아려고 노력 하는 것.

그리하여 저는 시험은 좋은점들이 나쁜점들보다 많고, 미래에서 도와줄 것 같아서, 학교에서 꼭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만주면 그냥시에는 편리할수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꼭 학교에서 있어야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편리하지만, 제가 수학 시험을 통해 70점을 받지 안았으면 지금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을거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못배웠을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선생님한테못받고 트린것이문질 몰르니깐 내가 진짜로 틀렸다고 인정하지 안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시험은 학교에서 있는 것이 정당한것인 것 같습니다.

[9학년 대상] 엄마에게 쓰는 편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정기려



열심히 글짓기에 집중하고 있는 6,7,8학년 학생들

나는 우리 집의 막내 딸이다. 원래 막내들은 언니,오빠들보다 관심을 더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집은 다르다. 나는 언니,오빠들 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지않는다. 그 이유는언니와 오빠는 나의 2분 언니와 오빠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 세남매는 셋쌍둥이다. 나는 특별한 딸인가 만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어렸을때는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한가지 있었다. "엄마는 왜 언니! 오빠한테 만 그걸 해줘!" 어린 나이에 엄마 밖에 모르는 나는 엄마도 나 밖에 몰랐음을 원하는 마음이 컸었다. 그래서인지 시키나 질투도 많았고 언니 오빠와 다툼이 많았다. "이것을 하면 내가 더 돈 보일까? 이것을 하면 엄마가 나한테 제일 먼저 밥을 줄까?" 하루종일 그 생각만 했던 나는 엄마한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나 좀 사랑해주세요."

크는 과정에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한 발 앞서서 유치한 생각을 접고 철이 들었다. 그럴수밖에 없었던 것은 엄마 때문이다. 엄마는 안 보이는 우리들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나한테 계속 언니, 오빠들 챙기라고 말씀을 하셨다. 엄마는 그때 자기가 기댈수있는 든직한 나무와 언니, 오빠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그들이 필요했다. 아직 속은 어리고 어린 씩이었던나는 길을 커다

란 나무로 위장을 했었고 엄마는 나의 가면에 속아서 나한테 한 없이 기대했다. 나를 더 이상 딸이 아닌 친구로 대할수있어 너무 기뻐하시는 엄마의 모습은 내가 너무 힘들때도 가면을 못벗게 만드셨다. 하루종일 연기를 펼쳤던 그때의 나는 엄마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저는 어디에, 누구한테 기대나요?"

이제 나는 드디어 고등학생이다. 질투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가 버렸고 연기는 이제 연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서 엄마에 대한 감정은 한가지만 고스란히 남았다. 내눈에서는 언니를 먼저 챙기는 엄마의 행동은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을 주는 행동이었고 나한테만 너무 심하게 기대는 엄마의 행동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온 결과였다는 것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나는 엄마에게 죄송함이 크게 든다. "엄마는 우리 세남매를 갖기위해서 엄청난 시련들과 아픔을 겪으셨고 그 이후로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다한 시련을 겪어왔던 분이신데 왜 나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그때 덜 정정거렸을걸 "이라는 후회도 과도처럼 수없이 밀려온다.

지금의 나는 엄마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엄마, 송영호, 막내딸이 바보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늘 그랬던 것처럼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사랑할게요. 많이, 많이 존경합니다."

[10학년 대상] 존경하는 인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수경



"수지야, 학교 가다와서 손은 시웠니? 수지야, 수학 공부는? "수지야 뭐하니?" "수지야, 피아노 연습 하지!" 제 동생 수지는 저한테 아주 소중하고 하나 밖에없는 동생입니다. 저 보다 4살이나 적은 수지는 늘 제일 친한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이지만, 또 직혀야하는 어린 동생이기도 합니다. 저보다 어리고, 제가 보호해야 하는 제 동생을 존경하는 이유는 수지는 항상 제약점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장녀로서, 수지의 언니로서, 제가 느끼는 책임감은 항상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수지한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고, 제가 만드는 실수와 나쁜 버릇을 수지가 배울까봐 저는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수지 앞에서만을 멋지고 완벽한 언니로 남고 싶었습니다. 수지 앞에서는 나약한 모습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노력에 넘어져서 다리가 까져도 안 아픈척을 했고,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을때도 수지가 더 슬퍼할까봐, 수지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꼭 수지한테 먼저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 하는것이 수지를 위한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지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했고, 그이유로 꼭 만족하고 행복했기 때 문이였습니다. "언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다!" 라고 자랑하러 오면, 저는 뿌듯하고, 나라 같 것 같았습니다. 끈임 없이 저는 완벽한 이미지를 싸들려고 했지만 저도 실수를 했고, 제가 하는 모든 실수는 제 스스로한테 힘든 시가

가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에, 저는 조금씩 물어졌고, 수지가 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어린 저의 동생은 어는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완벽하려고 해? 언니는 그냥 나처럼 노력하고 즐기면서해! 언니 포기하는거야?" 저는 힘들어도 수지를 위해 늘일어 나고, 다음번에는 실패를 또 하지 않도록 노력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은 수지는 제가 실패 하는 것은 한번도 평고를 하지 않았고, 제가 노력하는 모습만 봤다는 것을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항상 수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수지가 저한테 좋은 점을 배웠으면 했었지만, 저는 수지가 하는 것 처럼 한번도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즐겨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동생은 제가 항상 그러 놓고 싶어 하는 완벽한 그림을 보여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실수와, 내 모든 나쁜 점을 보려고 했고, 그 경험으로 배우고 성장 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수지는 제 동생이었지만 저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완벽하게 보이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만드는 실수는 저를 더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해지게 동화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수지는 제가 지켜야 되는 제 동 생이 었지만, 저도 수지한테 배워야 하라는 것을 깨달게 했습니다. 그이유로 수지는 제가 존경 하는 인물입니다.

매사추세츠 주민 40% 음식 사막에 거주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 접근 어려워 문제 해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의 상당수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공공 건강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민의 약 40%가 슈퍼마켓이나 영양가 높은 음식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프링필드의 메이슨스퀘어 지역에서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리즈 오길비는 자신의 집 주변 1.75마일 내에 패스트푸드 가게가 10곳이 있다.

그러나 과일이나 야채를 구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식료품점은 오길비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2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식료품점에 가려면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이나 가야 한다.

이처럼 신선한 음식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은 “음식 사막 (food deserts)” 이라고 불린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음식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2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는 70만 명의 어린이와 52만 3

천 명의 노인이 포함되어 있다.

음식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접근이 어려운 슈퍼마켓보다는 패스트푸드 가게, 편의점 등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오히려 비만 인구가 많고 주민들이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매사추세츠 공공 건강 협회는 음식 사막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

문에 슈퍼마켓의 매출도 떨어지고, 그만큼 입점한 업체의 수 역시 적은 것이다.

매사추세츠에서 음식 사막 문제가 심각한 도시로는 첼시, 스프링필드, 톤턴, 에버릿, 리버어, 로렌스, 로웰, 린, 브록턴, 치코피 등이 있다.

보고서는 음식 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014년에 매사추세츠 음식 조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jsi@bostonkorea.com



MA주민 상당수가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등을 구하기 쉽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비자 발급 제한으로 일부 업계 타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트럼프 정부가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시직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텔, 식당, 조경 회사 등의 업체가 시즌에 따른 노동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시즌별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국 정부는 H-2B 비자를 발급한다. H-2B 비자는 매년 6,600개가 발급된다.

이전까지는 H-2B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한 외국인 노동자가 고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경우 H-2B 비자 발급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해 말,

H-2B 쿼터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는 고국에 갔다가 돌아와도 H-2B 비자를 받을 때 쿼터 제한을 받게 된다.

연방 의회에서 지난 1일, H-2B 비자의 쿼터를 늘려 올해 13만개까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 몇 주 간의 수속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는 메모리얼 데이까지 H-2B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에 H-2B를 통해 여행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많은 대형 리조트 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필요한 준비하는 상담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회사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yinsurance.com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2017년 MA주 대학 졸업식 연사들은 누구?

마크 주커버그 13년만에 학위, 신중현 버클리 명예 박사 수여
엘리자베스 워런, 오프라 윈프리 등 여성계 저명인사 대거 방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졸업 시즌이 시작되는 5월에 접어들면서 각 대학의 졸업식 연사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올해 보스톤의 각 대학을 찾을 유명연사로는 마크 주커버그 (하버드), 엘리자베스 워런 (UMASS 앰허스트, 휠록 칼리지), 팀 쿡(MIT) 등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사들이 보스톤을 찾을 전망이다. 올해는 한국 특의 대부 신중현의 명예박사 학위(버클리 음대) 수여도 예정되어 있다.

마크 주커버그는 하버드로 금의환향한다. 동문 관리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가 된 '페이스북'의 성공을 위해 그는 대학 2학년때 하버드 대학을 자퇴했다. 페이스북의 성공으로 세계 최고 부자 5위(\$56Billion)에 올라있는 그는 올해 졸업식에서 명예 학위도 받을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여성 저명인사들이 눈에 띈다. 작년 서퍽대학을 찾았던 엘리자베스 워런 MA주 상원의원은 올해는 UMASS앰허스트와 휠록 대학의 졸업식 연사로 초대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인 그는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2020년 미 대선의 주요 후보 중 한 명이다.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앵커는 노스이스턴 대학을 방문한다. 이란-이라크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를 누비며 중견기자로 활약하며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 등의 단독 인터뷰를 따내 주목을 받았다. 2012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국제부 프로그램 '아만푸어'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내 명문 여대중 하나인 스미스 대학에 초대되었다. 미시시피 강 근처의 가난한 흑인마을에서 태어났던 그는 친척의 성폭행과 임신, 반항과 자살 시도 등 불우한 유년시절을 딛고 지금은 전 세계 흑인 여성 중 가장 성공한 인물로 인간승리를 이뤘다. 2008년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연설은 2005년 스티븐 잡스 추사와 함께 스탠포드 생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사로 기억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초의 여성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 (UMASS 보스톤)와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엘런 존슨 설리프(합스 칼리지) 현 라이베리아 대통령도 졸업연사로서 보스톤을 찾는다.

한국 특의 대부인 신중현은 버클리 음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 버클리 음대의 로저 브라운 총장은 "신중현은 한국 음악의 세계적 성공의 기반을 다진 역할을 한 뮤지션"이라고 소개하며 "신념을 굽히지 않는 예술가의 자질을 가졌다"고 학위 수여의 이유를 밝혔다. 버클리 음대는 신중현이 '히키신'이란 이름으로 기타 솔로앨범을 낸 뒤 1961년 한국 첫 락밴드인 '애드 포'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1968년 펠시스터즈의 앨범 '

남아'를 프로듀싱 했다는 이력도 상세히 소개했다.

가장 많은 대학이 졸업식을 치루는 시기는 셋째 주 주말(20일, 21일)이다. 이 기간에 보스톤대학(BU)와 서퍽대학을 포함하여 16개의 대학이 졸업식을 치를 예정이다. 졸업식 기간 동안에는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한 인파로 호텔 등의 숙박업체나 식당, 도로 및 대중교통이 매우 붐빌 것으로 보여 이 기간 시내와 주요 대학들을 지나거나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보스톤 지역 주요 대학 졸업 일정〉
- 5월 5일 - 노스이스턴 대학 (Northeastern University)
 - 5월 6일 - 매사추세츠 약학&보건대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 5월 12일 - UMASS 앰허스트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5월 13일 - 버클리 음악대학 (Berklee College of Music)
 - UMASS 로웰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 UMASS 다탘머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artmouth)
 - 5월 14일 - 에머슨 칼리지 (Emerson College)
 - 마운트 아이다 칼리지 (Mount Ida College)
 - 스프링필드 칼리지 (Springfield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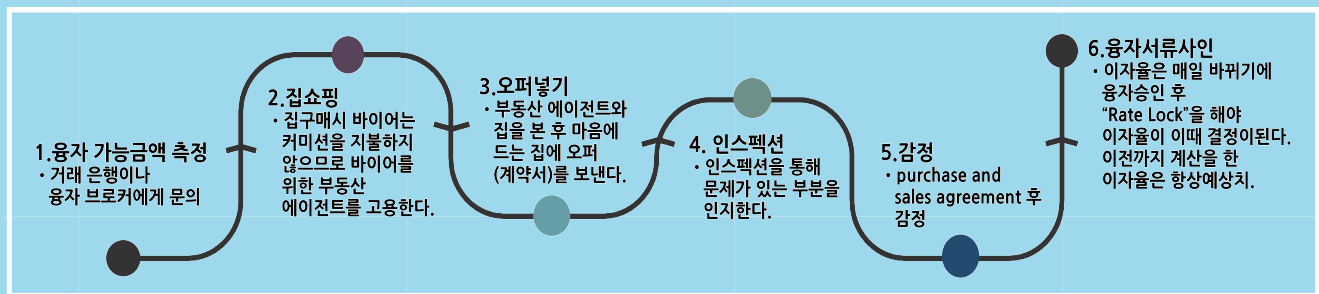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는 모교인 하버드대학에서 자퇴한지 13년만에 졸업장을 받는다

- College) 5월 19일 - 시몬스 칼리지 (Simmons College)
 - 휠록 칼리지 (Wheelock College)
 - 5월 20일 - 뱁슨 칼리지 (Babson College)
 - 안나 마리아 칼리지 (Anna Maria College)
 - 안도버 뉴튼 신학교 (Andover Newton Theological School)
 - 햄프셔 칼리지 (Hampshire College)
 - 레슬리 칼리지 (Lesley University)
 - 웨스턴 뉴 잉글랜드 대학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 5월 21일 - 보스톤 대학 (Boston University)
 - 베이 패스 대학 (Bay Path University)
 - 브랜다이즈 대학 (Brandeis University)
 - 클라크 대학 (Clark University)
 - 커리 칼리지 (Curry College)
 - 프레임িং햄 주립 대학 (Framingham State University)
 - 스미스 칼리지 (Smith College)
 - 스톤힐 칼리지 (Stonehill College)
 - 서퍽 대학 (Suffolk University)
 - 터프츠 대학 (Tufts University)
 - 5월 22일 - 보스톤 칼리지 (Boston College)
 - 5월 25일 - 하버드 대학 (Harvard University)
 - 5월 26일 - 웰슬리 칼리지 (Wellesley College)
 - UMASS 보스톤 (UMass Boston)
 - 6월 2일 - 노스 버넷 스트리트 학교 (North Bennet Street School)
 - 6월 4일 - 윌리엄스 칼리지 (Williams College)
 - 6월 9일 - 매사추세츠 공대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 학부 기준 (대학원 및 일부 학과 일정은 다를 수 있음)
- itshunne@bostonkorea.com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주세요!



주택 거래가 활발해 지는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궁금하신점 그리고 프로세스 과정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생소한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들 및 바이어가 알고있어야될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어 분들께서는 집 구매 전에 미리 자신의 크레딧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간혹 섞이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美 1,300조 예산안 하원 통과 4일 상원 표결

초당파적 찬성 얻어...상원서도 무난히 통과될듯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오는 9월30일까지 적용되는 2017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3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1조1600억달러(약 1311조9600억원) 규모의 연방정부 지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9표대 반대 118표의 초당파적 지지 속에 의결했다.

이제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 가게 되며, 상원은 빠르면 다음날(4일) 예산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섯다운(부분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상원은 이번 주 안으로 예산안을 의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난 수주간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

립을 빚어왔던 민주당·공화당 양 의원들은 지난달 말 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합의된 예산안에는 국경안보 보강 비용 15억달러 상당과 국방비 증액 등이 포함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내세웠던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은 제외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인 예산감축을 선언했던 국무부 등 정부부처에 대한 예산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미 국립보건원(NIH) 신규 예산 20억달러, 메디케어 지원금 2억9500만달러 등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국방비 증액이 예산안에 반영된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하며 이번 예산안 통과를 공화당의 승리라고 자평

했다. 라이언 의장은 "새 시대의 시작"이라며 "더 이상 국방비가 다른 국내예산 증액의 인질로 붙잡히지 않아도 된다"고 반겼다.

그러나 하원 내 공화당 분열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내 하원 강경보수와 의원모임 '프리덤 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마크 매도스는 예산안이 "보수주의의 우선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실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118명 가운데 다수는 공화당(103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는 어질러진 것을 치우기 위해서라도 9월 '좋은 섯다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산안 합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yeoulim@news1.kr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3일 예산안 표결에 앞서 하원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대체 트럼프케어의 모든 것

▶▶1면에 이어서

적게 부과하고 기성층에는 보험료를 많이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폐지하고 보험사에 부과되는 세금도 폐지한다. 공화당은 개인 가입의무화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되 벌금 방식을 바꿔 재가입할 때 30%의 벌과금을 부담토록 했다.

Q: 트럼프케어가 보험가입자 수에 영향을 주나?

A: 그렇다. 미의회 부속 의회예산사무국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원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까지 2천4백만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정안을

Q: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영향을 받나?

A: 절대적으로 그렇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트럼프케어는 향후 10년 동안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드는 예산을 8억8천만 불 줄인다. 메디케어(매스헬스)는 저소득자와 노약자, 장애자들을 돕는 건강보험이다.

오바마케어는 메디케어 확대 정책을 통해 1천1백만명의 가입자를 늘렸다. 현재 메디케어 확대안을 채택한 31개 주는 향후 몇 년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 확대안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다. 2020년부터는 연방 보조금 지급 방식이 바뀐다. 과거는 주정부 비용의 절반을 보충했지만 가입자 한명당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 비용은 적어지게 된다.

Q: 공화당이 기존환자들의 가입을 보호키 위해 변경한 것은 무엇인가?

A: 오바마케어는 보험사들이 암, 우울증, 천식 등 가입자의 기존 질환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다른 가입자에 비해 과다 보험료 책정도 금지했다.

뉴저지 공화당의원 탐 맥아더의 트럼프케어 수정은 각 주별로 웨이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웨이버를 신청한 주는 기존 환자에게 대한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경은 기존 질환자들의 의료보험료를 폭증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케어 전 만성질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3-4배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 공화당 의원 프레드 업튼은 수정안을 만들어 8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이 기존질환자들의 비용을 커버토록 했다.

Q: 최근 변경에서 예산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 의회예산국은 아직 최종안을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 의회 표결전에 예산을 발표하기는 불가능하다. 80억달러가 배정되기 전 의회예산국은 약 2,6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몇 개주가 웨이버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진다.

지난 3월 의회예산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공화당 안은 연방적자를 2017년과 2026년 사이 1,500억달러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천4백만명의 의료보험과 바꾼 절약이다.

Q: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A: 불확실하다. 상원이 법안심사를 시작하기전 상원법사위(Parliamentarian)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이 법안이 조정 진행(Reconciliation Process) 하에서 표결가능한 예산 관련 법안 규정에 맞는지 심의하게 된다. 최근 트럼프케어가 각주에 섯권한을 준 수정안 등이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메디케어 변경에 대해 상원들은 극히 조심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bostonokorea.com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용력 전통상 대여 (매일상, 화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물상 전통상대여,
 소중한 내 마거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침하게!

- 품격 있는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격한 마음으로 만든 가짜 거울과
- 국내산 용가임시와 장지, 공기
- 최정확하고 위생한 나비꽃대
- 품질향상 서비스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페이스북 1Q 순익 75% ↑ 강력한 모바일 광고 성장세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페이스북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분기 순익은 75% 이상 급증했다. 강력한 모바일 광고 사업 성장세의 영향이다.

3일 페이스북은 1분기(1~3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 늘어난 80억3000만달러였다고 발표했다. 시장예상치(78억4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30억6000만달러였다. 주당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3% 늘어난 1.04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예상치(87센트)를 대폭 상회했다.

페이스북의 총 광고 매출은 78억 6000만달러였다. 시장예상치(76억 8000만달러)를 넘어섰다.

페이스북 광고 매출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비중이 더욱 커졌다.

3월31일 기준 페이스북의 모바일 일간활성사용자수(DAU)는 전년비 17% 늘어난 19억 4000만 명을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는 올해 페이스북 글로벌 모바일 광고 시장 점유율이 22.6%로, 구글(35.1%)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페이스북은 살인, 자살, 성폭행, 인종혐오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감시하고 삭제하는 인력 3000여 명을 내년까지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잔혹 동영상'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따른 대응이다. 지난 달 클리블랜드의 한 남성이 70대 행인을 총으로 살해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또 태국 남성



이 생후 11개월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을 페이스북에서 생중계하기도 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가짜 뉴스가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됐다.

페이스북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음에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투자자들이 페이스북의 변경된 공시 방식을 소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emingway@news1.kr

FBI 국장 "지난해 대선 흔들었다는 생각에 울렁증"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은 3일 지난해 대선 투표를 수일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에 대한 재수사를 발표함으로써 선거관을 뒤흔들었다는 생각에 속에서 "울렁거림"을 느꼈다고 말했다.

코미 국장은 그러나 재수사 결정을 숨겼으면 훨씬 더 악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코미 국장은 이날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거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소 속이 울

렁거렸다. 그러나 솔직히 그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대선투표 10일을 앞둔 10월 28일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 재수사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을 때 전국적인 파장이 일었다.

코미 국장은 11월 8일 투표 때까지 수사 사실을 숨기거나 의회에 이를 통보하거나 두 가지 방안이 있었다며 "내 견해로는 은폐가 재앙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결정은 올바른 것이었으며 다시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이 11월 8일이 아닌 10월 27일 치러졌다면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대선 패배는 코미 국장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 재수사 발표와 러시아 해커들의 선거 개입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트럼프, 정교분리도 흔들다.. 종교단체 정치참여 '자유롭게'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회 정치참여 금지, 이른바 정교분리(政教分離) 원칙을 명시한 '존슨 수정헌법'(Johnson Amendment)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국가기도의 날'을 맞아 보수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정치참여 금지 조항을 철폐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초 워싱턴 D.C.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존슨 수정헌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믿음의 대변인들이 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존슨 수정헌법 폐지를 예고했다.

존슨 수정헌법은 린든 B. 존슨 전 미국 대통령(1963-1969)이 상원의원 시절인 1954년 발의해 제정된 조항으로, 교회를 비롯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비정부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어기면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종교집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존슨 수정헌법이 '미국인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경배할 권리가 있다'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선거운동 역시 일종의 경배행위라는 인식을 내포한 것이다.

존슨 수정헌법이 폐기되면 교회는 자유롭게 정치인 선거운동을 후원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교회 헌금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교회 등 비영리단체는 슈퍼팩(PAC)과 달리 대중에 정치기부 내역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IRS)에 종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량권을 활용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건강보험 내 과잉서비스를 의무화한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규제 완화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존슨 수정헌법은 세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명령 역시 법적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명분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yeoulim@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SPRING AWAKENING
봄이 오면...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보스톤 한미 문화 재단 
www.koreancultureboston.org


Chase Morrin


Ciera Ryu


Yumi Bae
원로/음악감독


Do Yeon Kim
가야금

MAY.6.SAT.7PM ADULT \$25
First Baptist Church STUDENT \$10
848 Beacon Street
Newton Center



추원  재오나눔포재단



국제선
모금 만찬

2017.5.20
5PM (SAT)

보스톤 한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봄이 왔습니다.
자연이 찬란하게 소생하는 5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보스톤 국제선 모금 만찬은 평화의 마을과 2세들을 위한 모금 만찬입니다.
서로 작은 힘을 모아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저녁식사, 흥겨운 음악과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준비하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선교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스톤 국제선 회장 및 임원 일동

장소:
DiBurro's Function Hall Facility
887 Boston Rd. Ward Hill, MA 01835

연락처:
유영심 978.994.5490, 최정숙 978.902.1111
황진희 508.685.4267, 김인숙 978.828.1383



'깜깜이 대선' 1강-2중-2약 판세 속 보수 결집 최대변수

'진보' 문재인 독주 속 안철수 하향세, '보수' 홍준표 맹추격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5·9'장미대선'이 4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표심이 '1강 2중 2약' 판세를 뒤흔들 최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달 3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기간에 돌입했다.

공표제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약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하락 추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실시해 3일 발표한 5월 첫째주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문 후보 지지도는 이전 조사(4월25~27일) 대비 2%p 하락한 38%로 나타났다.

안 후보 지지도는 전주 대비 4%p 하락해 20%로 집계된 반면, 홍 후보는 4%p 상승한 16%로 두 후보간 지지도가 오차범위(±3.1%p) 이내로 좁혀졌다.

홍 후보는 보수층 유권자로부터 이전 조사보다 7%p 오른 43%의 지지를

받았고, 보수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으로부터는 3%p 상승한 32%, 대구경북(TK) 유권자들로부터는 5%p 오른 27%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안 후보는 이전 조사에서 보수 유권자로부터 29%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0%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고 60대 이상은 36%에서 28%로 8%p 줄었다. 보수표심이 안 후보에서 홍 후보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양새다.

세 후보에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지지도는 전주 대비 1%p 상승한 8%,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지지도는 2%p 상승한 6%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2일 전국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는 4월 중순(17~18일) 대비 1.4%p 내린 42.4%를 기록하며 1강 독주를 이어갔다.

문 후보에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같은 기간 대비 8.4%p 오른 18.6%으로 이 기간 13.7% 하락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동률을 기록했다.

홍 후보는 TK에서 37.3%를 얻어 문 후보(30.7%), 안 후보(9.5%)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또 60대 이상에서 36.7%를 기록해 안 후보(29.7%), 문 후보(23.5%)를 제치고 선두를 차지하는 등 보수성향 유권자를 바탕으로 확실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후보 38.5%, 홍 후보 16.8%, 안 후보 15.7%, 심 후보 6.8%, 유 후보 3.8% 순으로 조사됐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7~8일 조선일보칸타퍼블릭 조사와 비교하면 문 후보는 35.7%에서 2.8%p, 홍 후보는 7.2%p에서 9.6%p 상승했다. 안 후보는 37.5%에서 21.8%p 하락했다.

홍 후보는 연일 자극적인 발언으로 보수 표심을 자극하면서 보수 결집에 '울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를 긴급히 배치해 놓고 10억달러를 내라고 한 것은 한국에 좌파정부가 들어설 것 같으니 구실을 붙여 사드를 빼면서 한미동맹도 깨겠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등 좌파 정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보수결집을 호소하

고 있다. 3일 부산과 대구를 찾았던 홍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다시 대구를 찾는다.

진보, 보수, 중도 등 이념성향에 따라 골고루 지지층을 보유한 안 후보는 보수 지지층 이탈을 막는 동시에 문 후보에 맞서 진보와 중도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안 후보는 '보수를 깨멸시키겠다고 하는 문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분열된다'고 주장한다. 홍 후보에 대해서는 '성범죄 모의에 가담한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정의 공범인 한국당의 소속으로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안 후보는 앞으로 남은 닷새간 '안철수,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이라는 파격적이고 절실한 캠페인을 진

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 후보는 최근 들어 홍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견제하고 있다. 그는 홍 후보에 대해 '박근혜 무죄, 박근혜 부활까지 외치고 있는 국정농단 세력'이라며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세력과 손잡고 공동정부를 만들자는 후보'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문 후보는 4일에는 서울, 고양 등 수도권에서 유세를 진행한다.

한편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yup01@news1.kr



예상 밖 '뜨거운' 사전투표...25% 찍고 전체투표율 80% 돌파?

선관위 "어린이날 변수지만 22% 내외 기록할듯" 전문가 "편의성으로 높은 참여...유불리 따지긴 어려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 첫날인 4일부터 11.70%를 기록하면서 전국단위 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사전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현재 전국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497만902명이 투표해 투표율 11.70%를 나타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국단위로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첫날 사전투표율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6·4 지방선거와 4·13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4.75%로 집계됐고 최종 11.49%로 마감됐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율은 56.8%였다.

선거사상 두번째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해 4·13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5.45%, 최종 투표율은 12.19%였다. 사전투표율을 포함한 전체 투표율은 58.0%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기고,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80%

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린이날인 점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사전투표 참여율은 둘째날 더 높은 수치를 보여왔다"며 "사전투표율은 22% 내외, 최종 투표율은 8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992년 제14대 대선에선 81.9%, 1997년 15대 대선 80.7%, 2002년 16대 대선 70.8%, 2007년 17대 대선 63%, 2012년 18대 대선 75.8%였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의 편리성과 함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을 높은 사전투표율의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전체 투표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5월9일에 투표를 하게 되면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20대가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20대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가 유리하다고 분석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

탄핵정국에 실망한 구여권 지지층이 투표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전체 투표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사전투표를 거듭하며 편의성을 국민들이 알게 돼 많이 참여한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표현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특히 전남(16.76%)과 광주(15.66%) 등 호남 투표율이 높은 것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 같다"며 "반면 대구가 낮은 것은

보수후보 단일화 등 마지막까지 판세를 보고 전략적으로 투표하려는 경향이 담긴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황 평론가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문 후보의 반대세력은 굳이 사전투표에 나설 필요가 없다"며 "2012년 대선 당시 50·60대가 막판에 투표소로 대거 향할 것처럼 높은 사전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Y 5 - MAY 11, 2017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KOREAN NORI SPRING ROLL

The looks are deceiving, it's more delicious than you think. And don't forget to have Dukboki with it!

떡볶이와 환상궁합인 김말이를 손쉽게 만드는 비법을 H마트가 공개합니다!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p>Dragon Fruit 드래곤 과일 \$3.99 lb.</p>	<p>JINGA Tofu 전가 두부 Firm/Soft - 16oz./pkg. \$0.99</p>	<p>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1.29 lb.</p>	<p>Packed Garlic 팩 마늘 Soft/pkg. 2\$3 pkg./lb.</p>	<p>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29 lb.</p>
<p>Ginger 생강 \$1.29 lb.</p>	<p>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29 lb.</p>	<p>Nagaimo 일본 마 \$5.99 lb.</p>	<p>Korean Melon 참외 \$1.99 lb.</p>	<p>Gobo 우엉 \$1.99 lb.</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eef Chuck Eye Roll Steak 육통심 스테이크 \$7.99 lb.</p>	<p>Whole Chicken 통닭 \$1.49 lb.</p>
<p>Sliced Pork Single Rib Belly for BBQ 구이용 생삼겹살 \$6.99 lb.</p>	<p>Beef Meat for Curry 가래용 소고기 \$7.99 lb.</p>
<p>Smoked Duck 냉동 훈제오리 \$12.99 lb.</p>	<p>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 (LA) 양념 (AY갈비) \$10.99 l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Head-on Shrimp 머리새우 31-40's \$5.99 lb.</p>	<p>Abalone 냉동 진북 \$19.99 lb.</p>
<p>SUHYUP Sea Squirt Block 수협냉동 멍게 1.1 lbs./pkg. \$6.99 lb.</p>	<p>Swai Fillet 스 와이 필렛 9-11's \$2.99 lb.</p>
<p>Louisiana Head-on Shrimp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13-15's \$6.99 lb.</p>	<p>Red Snapper 홍도미 \$6.99 lb.</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NISHIKI Premium Medium Rice 15 lbs. \$14.99</p>	<p>TAMAKI Gold Premium Short Grain 타마키 쌀 15 lbs. \$24.99</p>
<p>KWANGCHUN Green Tea Seaweed Layer 광천 농향 녹차김 0.7oz. x 1200/bag \$9.99</p>	<p>CJ Cooked White Rice CJ 찰밥 박스 7.4oz. x 1200/bag \$12.99</p>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제4회 H마트 & 뉴욕 라디오 코리아 NYNUPA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 장학금 \$1000 및 특별 브로치와 상감 - 전체 1명

- 날 짜: 2017. 6. 3(목) 오전 11시 - 오후 4시
사무관서: 2017. 6. 10 오전 11시 - 오후 4시
- 장 소: Leslie Great Lawn 40 Fort Lee Road, Leslie, NJ 07094
- 접수기간: 2017.4.21 - 5.28
- 참여대상: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 접수방법: H마트 NY, NJ, PA, MA 전 매장에 교차센터
- 참 가 비: \$20 (참가 접수시 H마트 상품권 \$20 교체 증명)
- 수상 발표: 2017.7.7 (금)
- *접수시 등재하신 이메일로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시 상 식: 2017.7.8 (토) 주 제: 당일 공개
- 문의: H마트 고객 서비스 센터 877-427-7386

<p>DANWA Soba Tsuyu 단와 소스 10.7oz. \$3.99</p>	<p>BONELLI Pure Grapeseed Oil 보넬리 포도씨유 1L \$4.99</p>	<p>SHIRAKU 100% Pure Sesame Oil 시라쿠 참깨유 946 oz. \$9.99</p>	<p>HANJIN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갈매미 14.1oz. \$4.99</p>	<p>DONGWON Tuna with Hot Pepper Sauce 동원 참치 5.3oz. x 400/pkg. \$7.99</p>
<p>HOUSE Vermorel Curry 하우스 카리 All Varieties 6.11oz. 2\$5 lb./oz.</p>	<p>HANJIN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lb. \$3.99</p>	<p>SOUP Stock for Cold Noodles 만스레 전자 냉면 육수 11.8oz. x 5oz./pkg. \$4.99</p>	<p>CJ Bibigo Beef/Pork Mandu CJ 비비고 향과 소고기/돼지고기 만두 Beef/Pkg. Pork/Pkg. - 3oz. \$8.99</p>	<p>NESTLE Green Tea KitKat 네슬레 녹차 KitKat 4.7oz. \$4.99</p>
<p>SHIRAKU Ramune Drink 시라쿠 라무네 드링크 All Varieties 6.7oz. \$0.99</p>	<p>SCOTT Extra Soft Tissue SCOTT Extra Soft 휴지 2000/pkg. \$13.99</p>	<p>SHM Electric Mixer & Grapper 신일 믹서기 겸 분쇄기 576W/1000W - 8oz. \$39.99 54.99</p>	<p>CHOICE L Polystyrene Lunch Box 쵸이스 엘 열회용 점심박스 5개입 23cm x 13cm. \$1.99 5.99</p>	<p>HANARO Roast Round Pan 하라로 찜통 고기구이판 \$15.99 52.99</p>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special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special item. All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H-MART BURLINGTON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321-43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트럼프, '사드 10억달러' 계산서 청구...FTA 재협상도

로이터 인터뷰 "北 김정은, 통치 쉽잖을것"
"사드 1조원 비용, 한국이 지불해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계산서'를 청구했다. 또한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최근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하고 심각한(major, major)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42분간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18일 방한 당시 한미 FTA의 '개정'(reform)을 원한다

고 밝혔으나 이 표현이 재협상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가 시작된 사드에 대해선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결국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지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최근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선 "북한과 심각하고 심각한 충돌이 생기는 결말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 말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도 평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이성적인 지도자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는 (권력을 잡았을때) 27세였다. 아버지가 죽고 정권을 물려받았다"면서 어린 나이에 정권을 이끄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김정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통치)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가 이성적이든 아니든 나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가 이성적이길 바랄뿐이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선 "그가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믿는다. 그는 혼란이나 죽음을 원치 않는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매우 좋은 사람이며 그에 대해 잘 알게됐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일련의 발언들과 맥을 같이 했다.

이달 6일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시 주석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제재를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의 새로운 압력을 넣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해석이 대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터뷰 도중 버튼을 눌러 콜라를 주문한 뒤 '하나의 중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바로 전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상과 또 다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인간적 관계를 만들었다"면서 "지금 그에게 어려움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원하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차이잉원 총통과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시진핑 주석에 북한에 대한 '책'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유럽 방문 기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를 원한다고도 밝혔다.

yjw@news1.kr

사드 비용 논란에 '신뢰 위기' 맞은 한미동맹

정부 "합의불변" 해명에도 美 韓부담 시사 발언' 계속
美 동맹에 사업논리 들이대...방위비 협상 염두 분석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한때 '빛살 틈도 없는(no daylight)' 굳건한 동맹으로 여겨졌던 한미간의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기존 합의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며 논란 진화를 시도했지만, 미측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동맹국에 뒤통수를 치는 듯한 발언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맨 처음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논란이 촉발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에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한국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한국에도 통보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우리 정부는 즉각 "한국이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합의 내용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워싱턴타임스와 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안보 수장간 핫라인이 가동된 건 이때다. 이후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기존의 사드 합의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맥마스터 보좌관은 우리측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동맹국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임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실언으로 종결

되는 듯했던 사드 비용 논란은 다음날인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으로 정점을 찍었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김 안보실장과 통화 이후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아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러게 아니었다"고 답한 것이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어 더해 "어떤 재협상이 있든 전까지 기존 협정은 유효한 것이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까지 완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현 상황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선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인터뷰 이후 "언급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지만 충분한 해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군인인 맥마스터 보좌관이 자신의 상관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 점을 감안하더라도, 맥마스터의 이번 발언에는 동맹국과의 논쟁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사업의 논리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밝힌 현 상황을 직시하고, 변화한 한미동맹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야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간에 약속된 사항인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말을 바꾼 이유도 이르면 연말 시작될 방위비 부담금 협상을 염두에 두고 기선제압을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가장 힘을 얻고 있다.

greenaomi@news1.kr

韓 사드 뒤통수, 北엔 대화 시사

대화 국면 전환? 압박 위한 계산된 발언 분석 분분
전문가 "기업가 통치 스타일, 안보에 공짜 없어"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청구' 발언으로 며칠간 한국을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발언의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줄곧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강조해 온 그가 처음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노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위기의 4월'을 6차 핵실험 등 전략도발 없이 지나는 만큼 당근도 꺼내 들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팀이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대북정책 브리핑을 마치고 낸 합동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평화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은 "영광스럽다"고까지 하면서 전날(4월 30일)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선 "북한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종잡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군사적 대응'에서 '대화·협상'으로 하루 만에 발언을 180도 바꾸면서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북한을 더욱 압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 생각을 몰랐으면 한다"는 그의 말대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옥죄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 동맹국인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한국의 사드 비용 지불'은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은 이미 한미간 약속된 사항과 어긋나는 발언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연일 사드 비용 청구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두고 공식 외교·안보 라인을 통하지 않은 돌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지금은 실제 사드 비용 청구가 아니라 내년에 본격 시작될 한미간 방위비 부담금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재협상이 있든 전까지 기존 협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협상 가능성도 거의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사드 약정서만 믿고 있던 한국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letit25@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Single Family

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1,699,000**



Condo

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및 Garage,
파킹, T- 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LISTINGS

1. Full Plant 플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11. 미림 식품 : Allston **SOLD**
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
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
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
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
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
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

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



한식&일식 식당

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북중관계 더 멀어졌다. 한국전쟁 이래 최악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북한의 최대 맹방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수위를 높이자 북중관계가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전통의 혈맹이었다. 만약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북한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시 중국은 '순망치한(唇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을 내세우며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했다. 북한이라는 '입술'이 없으면 미국과의 완충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은 '이'가 시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양국은 1961년 조중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등 항상 같은 길을 걸어왔다. 김일성이 덩샤오핑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일화는 북중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에피소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중관계가 눈에 띄게 소원해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마라라고 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북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 "조중 공동방위조약 안 지킬 수도 있어"-환구시보

3일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가 "조중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

다"고 하자 북한도 "중국이 금도(red line)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공산당 대변자인 환구시보는 3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중간 맺어진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자 '조중공동방위조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중공동방위조약은 1961년 맺어진 협정으로 조약국 중 한 나라가 위협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 등 즉각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환구시보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평화와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중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환구시보는 북한의 핵 활동이 북한은 물론 중국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의 국가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조중 공동방위조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구시보는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한미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한반도에 인접

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위협에 노출된다며 누구든지 간에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면 이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북의 핵개발로 동북아 평화가 깨지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의 상황이 비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 같은 마지노선을 지킬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 "중국이 금도를 넘었다"-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개인 명의의 논평을 실고 "미국이 요란하게 불어대는 위협공갈과 전쟁공음에 심장이 졸아들어서인지 덩치 큰 이웃나라(중국)에서 사리와 분별을 잃은 언사들이 연일 터져 나와 현 사태를 더욱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중국이 금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인민일보와 환구시보가 최근 논평으로 대북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을 거론하며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 최고 이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친선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선량한 이웃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라며 "조중 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하여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일부에서 나오는 동북 3성의 '핵실험 피해설'에 대해서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없는 억지주장이라며, 이를 떠드는 것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중국의 속내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붉은 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중 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존엄과 힘의 절대적 상징이며 최고 이익"이라며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

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 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북-중 떼어 놓기 일단은 성공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논평을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사실상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통의 맹방인 북-중을 떼어 놓는 데 일단 성공한 것 같다고 평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한 대북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sinopark@news1.kr



北 '中 레드라인 넘었다' 이례적 경고, 북중 관계 '변화'?

北 누적 불만 '경고'로 표출... '민을 건 핵·미사일'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전례 없는 중국의 대북 압박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겨냥하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 북중 관계에 모종의 변화가 생길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중(북중)관계의 기동을 짚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상대의 신의 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거둬 침해당해온 것은 결코 중국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북한)"이라며 "조중 관계의 '붉은 선'(레드 라인)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월과 2월 관영매체를 통해 '대국주의자' '친선적인 이웃이라는 주변 나라'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데서 한발 더 나간 발언이다.

정부당국도 북한의 직접적 표현에 주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영매체를 통해서 중국이 북중관계와 관련된 붉은선 넘었다고 했는데 이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면서 국제사회의 고립속에서도 북한을 지켜줬던

중국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최근 중국의 행보와 관련돼 있다.

중국은 올해 초 북한의 석탄 수입 금지 등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군의 군사전력에 대해 중국이 항구를 개방하는 모습은 북한으로서는 미·중이 경제 제재 뿐만 아니라 군사 공조까지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측의 변화된 모습으로 '벼랑 끝'에 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최후의 보루인 중국마저 대북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무기가 있어야만 정권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는 김정은에게 중국마저 미국에 협조하는 모습이라면 '미국'만이 북한의 정권을 담보해줄 수 있는 나라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시진핑의 압박과 설득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의 반응은 최근 서방국가 중심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

로, 체제 유지를 위해선 북중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내외적 차원의 메시지일 뿐이라고 관측했다.

양 교수는 "대내적으로는 '자주성'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물밑에서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또한 국경지대 장마당 폐쇄, 국경통제 강화, 주중 북한대사초치 등의 실제적 강경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북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중국 비판 논평이 개인 필명으로 작성된 점이 북한의 수위 조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외부에 중요한 기관별로 성명 발표하는 수준도 있고 기관에서 대변인이 하든지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여러가지 형식이 있는데 필명을 쓴 독특한 형식으로 비난을 발표한 것은 제가 보기엔 수위 조절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playingjo@news1.kr

中 외교부, 北 비난에 "객관성·공정성 유지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 "시비곡직 따라 사안 판단" 北 강경 비난에 이례적 대응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북한 관영매체가 중국을 직접 겨냥하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지난 몇년간 중국은 시비곡직(是非曲直·옳고 그름)에 따라 사안을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확고하게 노력해 왔다"며 "우리는 다른 이해 당사자가 지역 평화와 안정, 지역사회의 행복을 위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철' 명의의 '조중(북중)관계의 기동을 짚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중국을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했다.

논평은 "상대의 신의 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거둬 침해당해온 것은 결코 중국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북한)"이라며 "조중 관계의 '붉은 선'(레드 라인)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월과 2월 관영매체를 통해 '대국주의자' '친선적인 이웃이라는 주변 나라'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데서 한발 더 나간 발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사실상 정면 대응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례브리핑 하는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

PR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worldpay

<고객 절약 사례>

- 본촌: 20% 절약
- 돼지꿈: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불법 다운로드... 비디오회...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KBS, MBC, tvN, O'live, OCN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이런 경찰에 수사권?...수사력 먼저 키워야

과장·팀장, 사건 기록 안 보고 檢 송치...불신 자초
12만 조직, 잦은 경찰 비위사건에 안이한 인식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영화 '재심'은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뤘다. 당시 법원 도주를 목격한 10대 소년 최모씨(33)는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범인으로 몰렸다. 진범이 따로 있었지만 최씨는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지난해 11월 16년만에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 명의로 공식 사과문이 나온 것은 개정 이래 처음이었다.

지난 25일 서울의 한 경찰서장인 A 총경(58)이 구속됐다. 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총경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경이 부하직원에게 승진청탁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불만이 새어나왔다. 김 총경이 결국 법정 구속되자 이런 말은 속 들어갔다.

5월9일 있을 대선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들이 앞다투어 검·경 수사구조개혁을 공약하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조차 미덥지

않은 경찰에 수사권을 쥐도 되겠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고 수사·기소권 동시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경찰 수사력 논란... "수사경찰 역량 천차만별"

한국 경찰의 수사력은 얼마나 될까. 경찰의 중요 범죄 검거율은 상당한 수준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범죄 검거율은 76.9%로 전년보다 5.2% 포인트 올랐다. 특히 강도(101.6%, 전년도 사건 검거 포함), 살인(99.2%), 강간·강제추행(96.6%) 등 검거율이 100%에 근접하고 폭력(87.5%), 절도(58.3%) 검거율도 계속 오름세다.

하지만 드러난 통계와 달리 수사현장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반신반의하게 하는 증언들이 쏟아진다.

수도권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전직 경찰 고위 인사는 "서장 재직 시절 관내 사기 사건에 수사관이 엉뚱하게 은닉죄를 의율(擬律)한 사건이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과거 비슷한 사건을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며 "아무래도 이상해서 과거 사건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니 검찰로 넘어간 뒤 죄명이 바뀐 사건이었다. 수도권에서 규모가 손꼽히는 경찰서도 이런데 한적한 지방 경찰서 수사관들의 수준은 오죽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에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와도 문제"라며 "나는 관

심있는 사건은 직접 수사기록을 챙겨봤는데 서장은 물론 담당 과장·팀장조차 기록을 보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일선서 수사과장을 지낸 한 경정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검사, 판결을 하는 판사는 골무를 끼고 한장 한장 기록을 넘기며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는데 경찰은 과장·팀장들도 원 수사기록을 보지 않는다"며 "이런 우리의 수사 관행을 누가 알까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각하·무혐의·죄가안됨으로 처분한 피의자가 2만8599명이다. 반대로 경찰은 죄가 안된다고 봤지만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980명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동시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도구로 수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부 역량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수사직군을 완전히 분리해 경찰 본연의 업무인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경찰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꼽힌다.

경찰청 관계자(경정은)는 "평생 수사 업무만 맡는 검찰수사관과 비교해 지금은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경력, 노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현행 수사경과제 도나 수사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 등으로는 이를 해소할 수 없다. 수사 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씨(32)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 일선 경찰서 사건수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구한 날 터지는 고위간부 비위
경찰 조직의 비위, 기강해이 문제도 심각하다. 직급을 불문하고 비위 경찰 사건이 사흘이 멀다 하고 터져나온다.

전국 경찰을 관할하는 경찰청에서 감찰업무를 맡았던 경찰서장 A씨(58)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최근 의료업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전남 한 경찰서장 B씨(48, 총경)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서울 한 경찰서장 재직시절 관내 대학병원에서 '공짜 VIP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C씨(54, 경무관)는 최근 정직 2개월에 처해졌다.

이밖에 부산에선 중간간부(경위) 두 명이 도박사건에 연루되는가 하면, 전남 목포에선 근무 중 순찰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경사(47)와 순경(29·여)이 적발됐다. 수사권이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경찰 내부부터 변화와 자정노력이 필요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내부의 상황인식은 안이하

기만하다. 한 간부 경찰은 "일반 공무원 9급에도 못미치는 순경들 비위까지 기사가 나온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이겠지만 다른 공직 사회와 비교해 유독 경찰을 향한 잦은 가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내부에선 비위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머릿수가 워낙 많아서 드러난 건수가 많은 뿐 현원 대비로 보면 검찰보다 비율이 훨씬 낮다. 우병우·홍만표·진경준 등 고위 검찰 인사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할 바가 못된다"는 변명이 나온다. 혹은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실제로 A 총경 사건이 터지자 경찰 내부에선 '수사구조개혁 논의 과정의 회색양'이란 동정론이 나왔었다.

경찰 관련학과 한 교수는 "검·경이 서로의 비위를 놓고 힐난하는 이러한 행태 때문에 수사권 독립 문제가 국민들 눈에 '뱀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독립된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이 그 위상에 걸맞은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

3월 여행수지 메르스급 적자...1Q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최대

월 여행수지 메르스 때 14.7억불 이후 20개월만에 최대 적자
해운 침체·사드 보복 겹쳐 1Q 경상흑자 전년동기비 57.4억불 줄어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올해 1분기 서비스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해운 침체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겹친 탓이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면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9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억4000만 달러 줄었다.

◇중국 사드 보복에 여행수지 직격탄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서비스수지가 88억 6000만달러 적자라고 4일 밝혔다. 사상 최대 적자액이다. 1월(-33억6000만달러)과 3월(-32억 7000만달러) 적자액이 컸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으로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하면서 여행수지가 급감했다. 여행수

지는 올해 1분기 37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액이 지난해 1분기(-19억8000만달러)보다 17억6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을 찾은 입국자 수(370만6000명)보다 출국자 수(651만 5000명)가 많은 것이 배경이다.

월별로는 지난 3월 여행수지 적자가 13억 5000만달러에 달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 7월(-14억7000만달러)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큰 적자액이다. 사드 갈등으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40% 감소했다.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은 각각 22.4%, 14.9% 늘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 수가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증가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입국자가 준 것

도 적자 규모 확대의 원인"이라고 했다.

운송수지 적자도 역대 최대다. 올 1분기 14억 20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세계 경제 회복으로 교역량이 늘었지만, 해운사의 과잉투자 여파가 지속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15년 2.7%에서 지난해 2.2%로 떨어졌다가 올해 3.8%(전망치)로 높아졌다. 그러나 글로벌 선박량(적재가능량)이 2015년 183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지난해 1970만TEU로 7.6% 늘면서 운송수지가 악화했다.

1분기 서비스수지 중 가공서비스(-15억7000만달러)와 지식재산권사용료(-6억4000만달러)도 적자였다. 건설(15억1000만달러)과 기타사업서비스(31억달러)만 적자를 면했다.

◇수출보다 수입 증가 폭 커
서비스수지가 부진한 상황에서 1분기 상품

수지는 281억60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수출과 수입이 나란히 늘었다.

증가 폭은 수입이 더 컸다. 수입은 지난해 1분기보다 24.5% 늘어난 362억9000만달러다.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고루 늘었다. 원유가 80.2%, 기계류·정밀기기가 34.3% 증가했다. 원유는 유가 상승이,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확대가 주요 배경이다.

수출은 17.6% 늘어난 1391억2000만달러다. 1분기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나 늘었다. 화공품과 석유제품도 각각 26.1%, 67.3% 증가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국제유가 상승과 설비투자 확대 영향"이라며 "한국 경제의 긍정적 신호 중 하나"라고 했다.

keon@news1.kr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HomeServic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Patrick Thomas
617.935.4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 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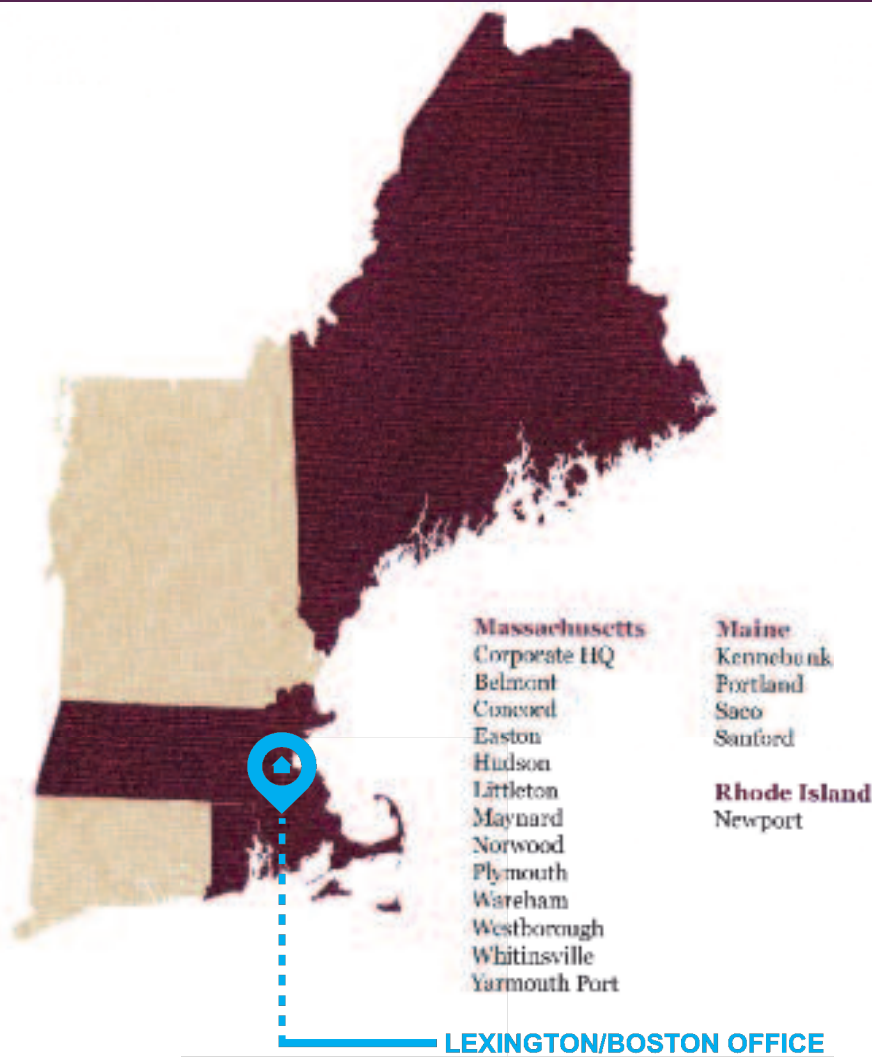
Angela Eleazar
617.319.6657



AI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패트리어츠 2017 드래프트 선택 선수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2017 NFL 드래프트에서 팀 역사상 가장 적은 4명만을 선택했다. 이미 4월에 다른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드래프트 선택권을 양도했기 때문이다.

패트리어츠는 올해 첫 선택권이 드래프트 3라운드 선택권이였다. 다른 팀에 비하면 다소 김이 빠지는 드래프트였지만, 드래프트에서 선택된 4명의 패트리어츠 선수들을 살펴보자.

Derek Rivers, DE (3라운드, 전체 순위 83)

올해 드래프트에서 패트리어츠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지션은 결국 디펜시브 엔드였다. 패트리어츠가 선택할 수 있는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는 3명 정도였는데, 패스 러시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리버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리버스는 영스타운 재학 시절 41개의 쿼터백 색을 성공시켜 학교 기록으로 남아 있고, 컴바인에서 벤치 프레스를 35번이나 했다.

패트리어츠는 현재 트레이 플로워스와 랍 닐코비치가 탑 디펜시브 엔드를 차지하고 있다. 리버스는 코니 얼리에 이어 4번째 디펜시브 엔드로 로스터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리버스는 올해 패트리어츠 경기에서 전체 스냅의 80% 정도의 비중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빠른 스피드 때문에 스페셜 팀

에서 활약을 할 수도 있다.

Antonio Garcia, OT (3라운드, 전체 순위 85)

레프트 태클은 패트리어츠에게 필요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가르시아를 선택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패트리어츠는 후반기 순위(3라운드 96번, 4라운드 124번)를 포기하면서까지 3라운드 초반 순위를 얻었는데, 이는 가르시아를 그만큼 원했다는 뜻이다. 가르시아는 리버스와 마찬가지로 작은 대학교 출신이지만 시니어볼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져 패트리어츠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

패트리어츠의 주전 레프트 태클인 네이트 솔더는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이다. 가르시아는 솔더가 떠날 경우 충분히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레프트 태클은 프리에이션트 시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패트리어츠는 솔더의 공백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eatrich Wise, DE (4라운드, 전체 순위 131)

올해는 드래프트에 참여한 선수들 중에 뛰어난 디펜시브 엔드가 많았다. 이 때문인지 패트리어츠는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에 2개의 드래프트 선택권을 사용했다. 와이즈는 팔이 길고 손이 큰 신체 조건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선



올해 드래프트에서 패트리어츠가 가장 먼저 선택한 선수는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의 데렉 리버스다

수다. 대학 시절 팀 캡틴 역할을 했던 것도 좋은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다만 와이즈는 대학 시절 부상 이력이 걸림돌로 작용해 후반기 라운드에 선택되었다.

패트리어츠는 다양한 수비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와이즈는 프로 첫 해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패트리어츠의 희망하는 대로 성장해 준다면 디펜시브 라인의 전면

에서 러닝 수비를 막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Conor McDermott, OT (6라운드, 전체 순위 211)

패트리어츠는 오픈시브 태클을 이미 3라운드에서 선택했다. 같은 포지션을 또 다시 선택한 것은 네이트 솔더가 떠나기 전에 선수층을 충분히 두껍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어진다. 올해 가을에 25세가 되는 맥더못은 드래프트에 참여한 다른 선수들보다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다.

맥더못을 선택한 전체 순위 211 선택권을 얻기 위해 패트리어츠는 2개의 드래프트 선택권(216, 239)을 포기했다. 그만큼 맥더못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패트리어츠가 맥더못을 선택하길 원했다는 의미다.

jsi@bostonkorea.com

셀틱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 캐조의 2연승

여동생 잃은 토머스, 슬픔 딛고 53득점 대활약
폴 피어스의 등번호 34번, 영구결번 결정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2011-12시즌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애틀랜틱 디비전 우승을 차지한 보스턴 셀틱스가 플레이오프전에서도 승승장구 하고 있다. 프로 농구(NBA) 사상 최다인 통산 18번째 우승을 노리는 셀틱스는 워싱턴 워자드에 역전승을 거두고 캐조의 2연승을 달렸다.

셀틱스의 활약의 중심에는 아이세야 토머스(Isaiah Thomas)가 있었다. 플레이 오프 1라운드(7전4선승제)에서 시카고 불스(8번 시드)를 4승 2패로 누르고 올라온 셀틱스는 2라운드에서 워싱턴 워자드를 만나 TD가든에서 열린 1차전과 2차전을 각각 123-111과 129-119로 승리했다.

1차전 1쿼터 초반 상대팀 오토 포터 주니어의 팔꿈치에 앞다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토머스는 오히려 환한 웃음을 지으며 팀원들을 독려했다. 1쿼터에서 24-38로 밀렸던 셀틱스는 잇따른 3점 슈트를 터뜨리며 3쿼터에만 36점을 몰아넣었다. 4쿼터에서도 셀틱스의 3점 슈트는 지치지 않았다. 종료 5분 40여 초 전 제이렌 브라운과 제이 크라우더가 연속 3점 슈트를 성공시킨 셀틱스는 이날 경기에서 19개의 3점

슈트를 성공시켰다. 1쿼터에서 앞다가 빠졌던 토머스는 33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2차전에서도 토머스는 지지치 않았다. 3쿼터까지 워싱턴에 10점차로 끌려가던 셀틱스는 4쿼터 토머스가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포를 가동했다. 토머스의 원맨쇼 활약으로 연장전에 돌입한 셀틱스는 129-119로 역전승을 거뒀다. 토머스는 4쿼터와 연장전 29점을 포함해 53점을 쏟아 부는 맹활약을 펼쳤다.

토머스의 이러한 활약은 여러 가지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신 것이라 농구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NBA 현역 최단신(175cm)인 그의 활약은 2m의 거구들이 즐비한 NBA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최하위 순위인 2라운드 60순위로 새크라멘토 킹스의 지명을 받아 간신히 NBA에 입성한 그는 6시즌 만에 셀틱스의 에이스가 되었다. 올 시즌 그는 평균 28.9점을 기록하여 리그 평균득점 3위에 올랐다.

더욱이 토머스는 플레이오프 직전 여동생 시나 토머스를 교통사고로 잃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내며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

시카고 불스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접한 토머스는 잠도 자지 못한 채 불스와 1라운드 1차전 경기에 나섰다. 8번 시드인 시카고에 2차전까지 내리 패배해 셀틱스에는 플레이오프 탈락의 어둠이 드리웠다. 그러나 토머스는 그는 농구화에 동생 이름을 새기며 이를 악물고 뛰었다. 이후 셀틱스의 4연승을 이끌었고, 2라운드에서도 셀틱스는 캐조의 2연승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은퇴를 선언한 폴 피어스(39·LA 클리퍼스)는 보스턴 셀틱스의 영구결번의 영예를 안게 됐다. ESPN은 2일 "보스턴 구단이 피어스의 등번호였던 34번을 영구결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피어스는 1998년 드래프트 10순위로 보스턴에 입단 후 15년간 셀틱스의 34번 유니폼을 입으며 활약했다. 2008년에는 우승 반지와 파이널 MVP 트로피를 동시에 석권하기도 했고, 셀틱스 구단 통산 최다 출전 3위(1102경기), 최다 득점 2위(2만4,021점), 최다 리바운드 7위(6651개), 최다 어시스트 5위(4305개), 최다 스틸 1위(1583개) 최다 3점 슈트 1위(1823개) 등에 올라 있다. 피어스는 2013 여름 구단의 리빌딩 정책에 따라 브루클린 네츠로 트레이드 됐다. 이후 워싱턴 워저즈를 거쳐 클리퍼스에 합류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셀틱스의 아이세야 토머스(28)는 플레이오프 직전 여동생을 잃은 슬픔을 딛고 플레이오프 1, 2라운드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통영 스탠포드 호텔 회원권 계약중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호령했던 통제영 포구에
21세기 최첨단 호텔 콘도 리조트가 우뚝 섭니다.



LISTINGS



북부 보스턴 부촌의 이탈리아 카페
ASKING \$80,000



퀸지 마리나 베이의 고급 1 B/R 콘도
ASKING \$500,000



하바드 스퀘어 성업중인 아침, 점심,
샌드위치 가게
ASKING \$70,000



보스턴 서부 성업중인 세탁소
ASKING \$130,000

Jay B. Lee 781.654.5281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TEL. **617.467.5218**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unwoody Parish of Christ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트)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2: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수) 7:30	LIFE 모임/주일 4:00

담임 목사 / 우서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담임목사: 박일종 목사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유치부: 임성진 목사
유년부: 임재승 목사
유스: David Moon 강도사
청년/EM: David Moon 강도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결혼..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HITRONS

INADA
The World's Best Massage Chair™
전지역 무료배송

의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마의자 메디칼 안마의자

치료기능이 더욱 강력해진
이나다 2017년 NEW Dream Wave 출시

전신 마사지와 효과를 입증한 이나다안마의자는 동친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속 혈관을 자극해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노인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도 좋아 많은 의사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추천하는 마사지처어입니다.

1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

106개의 에어백이 온몸의 근육속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 개선 및 림프마사지 기능으로 노폐물 제거 효과 및 손가락 끝 및 발가락 끝의 모세혈관까지 자극시켜 당뇨환자에게 효과.

3

목과 어깨 등의 탁월한 안마기능

특수 제작된 베개 타입 에어백 유닛으로 경추 및 승모근 부분을 정확히 찾아 안마해주며 Human 안마기법으로 사람의 손과 같은 동작으로 부드럽고 정확한 마사지.

4

불면증 해소

106개의 에어백이 온몸의 신경을 부드럽게하고 통증을 해소시켜 불면증 해소에 탁월한 기능.



2

근육 통증 및 수축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노환으로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경직된 신경을 풀어주고 첨단 센서로 지압점을 정확히 찾아 동친 부위를 해소시켜 주어 근육통증을 해소.

5

체형 및 골반 교정 기능

목 아래 경추부터 요추까지 뼈를 둘러싼 근육들의 마사지로 수축된 근육을 풀어주어 활성화시켜 뼈를 지탱하는 힘을 강화시켜 척추 교정 기능. 골반 아래 부분의 데블 에어 콤투레서로 리더미집한 안마기능 및 체형 교정 전문가들의 교정기법, 탑재된 특수 스트레칭 기능으로 골반 교정 및 척추 교정 기능.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된
이나다 안마의자의 놀라운 효능

이나다 안마의자
체형교정 골반교정 탁월한 효과!



DREAMWAVE
48개월
\$194/월 + Tax
36개월 무이자



NEST
\$7,900
\$6,000
36개월 무이자



FLEX 3
\$7,500
\$4,300
12개월 무이자



www.hitrons.com

하이트론스 HITRONS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몰 내)

HITRONS 필라지점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 201-417-535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201-417-5350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에어 우정식당 주방에서 일하신분과 웨이추레스 구함.

T. 508-395-2956

주방헬퍼, 웨이터/웨이추레스 구함

T. 781-863-2800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기관 에듀 보스톤에서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 회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자, 경영, 경제)
- Quickbook 사용가능자 우대
- 엑셀 사용가능자
- 영어/한국어 필수
- 보수 : \$40K
- 문의 : 617-254-1117, myung@eduboston.com
- 지원을 하실 분은 위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시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긴급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제청	617-536-7469
날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43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돌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해군대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익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시립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한미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메리맥 교회	401-821-2311
목양교회	978-806-1363
무지개교회	617-223-1690
밀양한인교회	207-774-1617
렉싱턴 풍성한교회	978-244-0691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953-0856
보스톤 국제교회	617-864-5948
보스톤 감리교회	617-459-6479
보스톤 사랑의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617-285-8870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978-844-2404
보스톤 새로남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교회	617-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한울교회	781-275-8233
보스톤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781-686-5526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터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앤디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콤방	617-437-0378
케이트메인 헤어	508-734-4446
웨스트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8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퍼트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트 시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재용)	617-421-2282
한서진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신심경정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카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한은애교정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켄지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랑스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

'안면거상술', 주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년층에게 효과적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오엘성형외과' ... "안면거상술은 깊은 주름과 처진 피부의 원인을 개선해 수술 후 부드럽고 어려보이는 효과 기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 즉 동안 얼굴이 미의 기준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젊어지는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부는 20세 후반부터 콜라겐 섬유가 줄어들어 탄력이 줄어들고 건조해지며 노화로 인해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처지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술이 안티에이징 성형이다. 안티에이징 성형에는 필러, 스컬트라, 보톡스, 레이저 리프팅 등 많은 방법들이 있으며 개선하고자 하는 부위와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젊은 층에 속하는 2-30대의 안티에이징 시술은 간단한 주사와 시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필러로 꺼진 부위를 채우거나 잔주름이 생긴 부위에 보톡스, 레이저 등 빠르고 저렴한 시술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깊은 주름과 간단한 주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엘 성형외과 이상원 원장의 도움말로 중장년층에 효과적인 '안면거상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동안성형의 대표주자, 안면거상술** : 안면거상술, 일명 페이스리프팅(face lift)으로 불리는 이 성형술은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 얼굴이나 목에 생긴 주름을 제거하는 미용 수술이다.

노화로 인해 처진 얼굴이나 볼 처짐, 깊은 주름 및 목에 생긴 주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므로 효과가 명확하



며 수술 후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대표적 동안 성형으로 불리고 있다.

수술 시기는 환자와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 하게 되고 이 수술은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로 진행 되기 때문에 수술 전 금식, 복용하던 약물 또한 의사와 상담 후 일정 기간 동안 중단 해야 한다.

안면거상술은 이마거상술, 목거상술, 얼굴거상술로 크게 나뉘며 대부분 귀 뒤쪽, 헤어라인을 절개 하여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진행 하고 개인마다 피부 처짐의 정도, 부위,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개 범위와 부위는 달라질 수 있다.

절개된 부위를 이용하여 피부와 근육막(SMAS: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을 당겨주어 주

름을 펴주고 당겨진 조직들이 남을 경우 제거하여 봉합 하게 된다. 수술시간은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실밥 제거는 2주 안으로 제거 할 수 있다.

◆ **안면거상술 추천대상** : ① 전체적인 얼굴주름이 고민인 경우 ② 노화로 인해 볼과 턱이 처진 경우 ③ 목주름, 이중턱이 고민인 경우 ④ 반 영구적인 효과를 원하는 경우 ⑤ 처진 입 꼬리로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

◆ **목거상술 추천대상** : ① 목에 깊은 주름이 있는 경우 ② 노화로 인해 얼굴과 목에 경계선이 불 분명한 경우

◆ **이마거상술 추천대상** : ① 노화로 인해 인상 개선이 필요한 분 ② 눈꺼풀이 처져 눈매가 무거워 보이는 분 ③ 미간이나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경우

◎ **안면거상 수술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 안면거상술을 진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흉터의 잔존이다. 주름이 완벽하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흉터가 남아 겉으로 티가 난다면 만족감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안면거상술 시 두피 안쪽을 절개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귀 앞에 보이는 부분을 절개할 때에도 약 3cm로 최소절개를 가하고 이마저도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정확한 위치를 절개하고 박리한 후 꼼꼼하게 봉합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안면거상술의 가장 흔한 부작용중 하나는 주름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인

데, 피부와 근막을 함께 당기지 않고 피부만 당겼을 때 주름 개선의 효과가 적고 유지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번에 큰 효과를 보기위해 피부와 근막을 너무 세게 당길 경우에는 눈썹과 눈이 과하게 당겨져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으므로 수술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한 후 수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안면거상 수술 후에는 음주나 흡연, 사우나,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수술 후 출혈, 염증 등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2주 회복기가 지난 후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념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2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특별시민', 100만 돌파... 장미대선+연휴 특수 이어질까?

(서울=뉴스스타) 정유진 기자 = 한국영화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선거'라는 신선한 소재와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민식을 비롯한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 현실 공감 메시지로 만장일치 호평을 얻고 있는 영화 '특별시민'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특별시민'은 개봉 6일째인 1일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영진위 통합전산망 배급사 집계에 따르면 이 영화는 이날 오후 3시 40분 누적 관객수 100만 839명을 기록했다.

이는 동시기 개봉작과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을 비롯 2017년 상반기 극장가에 이어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강세를 꺾은 것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뿐 아니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2' 등 막강한 개봉 예정작의 공세 속에서도 네이버, 다음, yes24 등 주요 예매사이트에서 예매율 1위를 사수하고 있어 5월 황금 연휴 식지 않는 흥행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 전망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대선 시즌 개봉해 영화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그 수혜를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민'은 현 서울시장 '변종구' (최민식)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치열한 선거전 이야기다. 최민식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과 새롭고 입체적인 정치인 캐릭터로 뜨거운 호평을 불러모으고 있다.

eujenej@news1.kr

'터널' 최진혁, 과거 다시 타임슬립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OCN 토일 오리지널 '터널'(연출 신용희, 극본 이은미) 최진혁이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구치소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된 정호영(허성태 분)이 목진우(김민상 분)의 면회 이후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목진우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는 정호영을 자극했던 것. 정호영은 죽기 직전 박광호(최진혁 분)에게 진짜 연쇄살인범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담긴 편지를 남겼다.

수사팀은 이날 본격적으로 30년 전 연쇄살인인물 수사를 시작했다. 정호영이 남긴 편지 속 '노엘'이라는 단어와 뒤꿈치에 찍혀 있는 점의 염료를 바탕으로 범인이 30년만에 다시 연쇄살인을 시작한 이유를 분석했고, 신재이(이유영 분)에게 프로그래밍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진범인 목진우는 박광호가 30년 전 자신이 터널에서 마주했던 과거의 형사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이어 박광호는 목진우 교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둘 사이의 쏠쏠한 긴장감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운명이 교차하는 곳 '터널'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30년동안 이어진 연쇄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수사물. 1986년 터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쫓던 열혈 형사 박광호(최진혁 분)가 2017년으로 의문의 시간 이동을 하게 되고, 엘리트 형사 김선재(윤현민 분), 범죄 심리학 교수 신재이(이유영 분)와 함께 30년만에 다시 시작된 연쇄 살인의 범인을 쫓는 과정을 그린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 방송 된다.

aluemchang@news1.kr

'보스 베이비', '너의 이름은' 제치고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

(서울=뉴스스타) 정유진 기자 = '슈렉', '마다가스카' 제작진의 2017년 드림웍스 신작 애니메이션 '보스 베이비'가 2017년 개봉 애니메이션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보스 베이비'는 개봉 첫 날인 3일 하루 만에 23만 7469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지난 1월 개봉한 '너의 이름은'의 오프닝 스코어 13만 8028명, '모아나'의 8만 4797명을 제치고 2017년 개봉 애니메이션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결과다.

또한 역대 흥행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개봉일 16만 592명/누적 1029만 6101명)을 비롯, '쿵푸팬더 2'(개봉일 13만 76명/누적 506만 4796명), '인사이드 아웃'(개봉일 6만 8222명/누적 496만 9735명), '주토피아'(개봉일 3만 5604명/누적 470만 6158명)의 오프닝 스코어를 모두 제쳐 남다른 흥행 저력을 과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보스 베이비'의 오프닝 스코어는 '쿵푸 팬더 2'(13만 76명), '짱구는 못말

려 극장판 : 초시공!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17만 473명)를 제치고 역대 5월 개봉 애니메이션 오프닝 스코어 1위에 등극해 더욱 의미가 깊다.

여기에 관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하듯 개봉일인 3일 하루 동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개봉 전부터 애니메이션 예매율 1위에 등극한 것은 물론, 2017년 개봉 애니메이션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흥행 질주를 시작한 '보스 베이비'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2'와 함께 황금연휴 극장가에 쌍끌이 흥행 구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슈렉', '마다가스카', '쿵푸팬더' 등 개성만점 캐릭터들을 탄생시켜 온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야심작 '보스 베이비'는 '보스 베이비'는 일곱 살 형 팀과 굴러들어온 동생 보스 베이비, 각자의 목표를 위해 합심한 형제의 전격 브로 코믹 어드벤처다.

eujenej@news1.kr



'가디언 오브 갤럭시 2' 감독 '한국영화 위대...내게 가장 큰 영향'

(서울=뉴스스타) 정유진 기자 = '제임스 건 감독이 한국 영화를 극찬했다.

제임스 건 감독은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CGV 왕십리에서 열린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2'(제임스 건 감독 이하 가오겔2)의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한국 취재진에 마지막 인사를 건내며 "한국 영화계에 감사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진심으로 오늘날 전세계 가장 위대한 영화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70년대 프랑스, 80년대 영국, 90년대 홍콩 지금은 한국의 시대다"라며 "한국의 영화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국 영화를 극찬했다.

또 "마더와 괴물",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를 봤다. 굉장한 시리즈가 많아 내 영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라며 "한국 영화 덕분에 드라마와 액션을 합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가능했다. 한국 영화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세계 영화가 한국에서 배울 게 많다"라고 덧붙혔다.

'가오겔2'는 최강 빌런 '타노스'에 맞서 은하계를 구하고 최고의 해결사로 등극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리더 스타로드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우주 곳곳을 누비며 겪는 일들을 그렸다.



크리스 프랫이 리더 스타로드 역을, 조 셀다가 은하계의 절대대 타노스의 양녀 가모라 역을 맡았다.

eujenej@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4월 24일 ~ 2017년 4월 30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6.6%
2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5.6%
3	SBS	미운우리새끼다시쓰는육아일기	15.9%
4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15.1%
4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15.1%
6	KBS1	KBS9시뉴스	14.8%
7	SBS	월화드라마(귓속말)	13.7%
8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12.3%
9	SBS	아침연속극(아임쓰리강남구)	11.6%
10	KBS2	해피선데이	11.3%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3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4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5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6	SBS	아침연속극(아임쓰리강남구)
7	SBS	월화드라마(귓속말)
8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9	MBC	일일드라마(행복을 주는 사람)
10	MBC	MBC아침드라마(훈장 오순남)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팔레트 (Feat. G-DRAGON)	아이유
02	사랑이 잘 (With 오혁)	아이유
03	TOMBOY	혁오
04	이런 엔딩	아이유
05	오늘 취하면 (Feat.창모)	수란
06	밤편지	아이유
07	이 지금	아이유
08	REALLY REALLY	WINNER
09	BLUE MOON (Prod. GroovyRoom)	효린, 창모
10	She's a Baby	지코 (Z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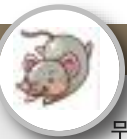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2				9	5			
7		9		6	2	1	4	
					7			5
8		1				6	5	
6								4
	4	2				7		8
5			7					
	6	7	2	4		5		1
			6	5				2

5월 7일 - 5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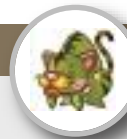
쥐띠 |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운수: 틈틈이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면 결국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금전: 촉만 믿고 거래하다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애정: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일이라도 금방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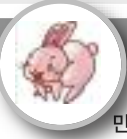
소띠 | 뜻밖의 행운이 오니

●운수: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일처리를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금전: 투자나 매매에 있어서 큰 기쁨이 따릅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 외모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오니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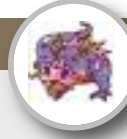
범띠 |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운수: 칭찬을 해줄만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해주세요. 칭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 상대가 병 주고 약 주는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



토끼띠 | 멀리서 찾지 말고

●운수: 현 상태에서 탈피할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면 좋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금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왔으니 잘 활용하면 이득으로 연결됩니다. ●애정: 두 사람의 사이가 많이 진전됩니다. 싱글은 가까이에 인연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용띠 |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운수: 말을 안 해도 척척 알아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편안합니다. 생활에서 오는 만족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전: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하게 되니 크게 절약이 됩니다. 돈을 쓰면서도 이익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겠습니다. ●애정: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9, 13일 길일, 7, 1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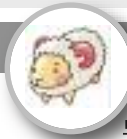
뱀띠 | 흔들리지 말아야

●운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금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돌부리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애정: 이미 연인이 있거나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금방 들릴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8, 10일 길일, 11, 1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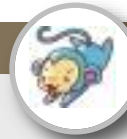
말띠 | 마음이 통하니

●운수: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차근차근 잘 살펴보세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만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정: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니 편해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8, 11일 길일, 7, 13일 주의.



양띠 |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운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전: 들어올 돈이 자꾸 미루어지니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득이 따라올 것입니다. ●애정: 화려한 사랑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계절을 타는지 지나간 추억에 젖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2일 길일, 11, 1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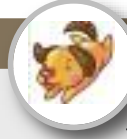
원숭이띠 |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운수: 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갈등하게 됩니다. ●금전: 원가를 사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싼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3일 길일, 7, 12일 주의.



닭띠 | 새로운 변화를

●운수: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금전: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줄여줄만한 일이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멋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할만한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0일 길일, 7, 13일 주의.



개띠 | 별집을 건드린 격이

●운수: 가만히 내버려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별집을 건드린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금전문제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길게 대화를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9일 길일, 8, 13일 주의.



돼지띠 |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나가야

●운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씩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금전: 나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애정: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행동이 상처를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야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3일 길일, 7, 12일 주의.

'아가씨' 박찬욱 · '도깨비' 김은숙 백상 대상 영예...이번 無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이번은 없었다. '아가씨' 박찬욱 감독, '도깨비' 김은숙 작가가 대상 영예를 안았다.

3일 오후 4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진행된 제53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영화 부문 대상을, '도깨비' 김은숙 작가가 TV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 부문, TV 부문 모두 골고루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영화 부문에서는 '곡성'이 작품상을 수상했고, '밀정' 김지운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송강호(밀정), 손예진(덕혜옹주)이 각각 남녀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TV 부문에서는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가 작품상을, 공유(도깨비), 서현진(또 오해영)이 남녀 최우수 연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백상예술대상은 영화 부문, TV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영화는 13개, TV는 14개 부문에서 수상자들을 배출했다. 2016년 4월 14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영상물등급위



원회 심의를 필하고 국내에서 개봉한 장편영화 및 지상파, 종편, 케이블 TV에서 방송된 TV 프로그램(연작의 경우 해당기간까지 1/3 이상 방영한 작품)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시상

식의 진행은 박중훈, 수지가 맡았으며 JTBC, JTBC2를 통해 생중계됐다.

eujenej@news1.kr



비와이 "투표와 랩의 공통점은 '표현'"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래퍼 비와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비와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0509 장미 프로젝트'에 참여해 원하는 대통령 상으로 듣는 대통령"를 꼽았다.

최근 촬영에서 비와는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받아, "국민의 소리를 듣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때 그냥 아니라 분별력 있게 들어야 하며, 그 방향은 내일, 그리고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는 이번이 두번째라는 그는 "투표와 랩은 사실 어떤 것에 대한 표

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래퍼에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처럼, 국민에게도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단답하게 소신을 드러냈다.

따라서 "투표 독려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며, "음악활동할 때도 선택 받았다는 생각으로 임하는데, 이 역시 선택 받은 것이라는 생각에 책임감있는 태도와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비와이가 참여한 '0509 장미 프로젝트'는 '무협찬 무단체 노개런티'로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함께 한 투표 독려 캠페인이다. ichi@news1.kr

'해투' 유희열 "이문세 '조조할인' 3분만에 만든 곡"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유희열이 이문세의 '조조할인'이 3분만에 만든 곡이라고 밝히며 눈길을 모았다. 4일 KBS2 '해피투게더'에선 유희열과 정재형이 출연했다.

이날 유희열은 이문세의 '조조할

인'이 3분만에 만든곡이라고 밝혔다. 유희열은 "이문세 선배가 찾아온다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든 곡이다. 안쓰고 있었는데 곡이 있을줄 알고 바로 방문하셨다.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자고 하시더라"며 즉석에서 3분만에 만들어야 했던

사연을 털어냈다. 또한 이날 유희열이 작곡한 주옥같은 명곡들이 언급됐다. 유희열은 "제가 작곡했지만 (가창력 때문에) 못 부르는 노래가 많다"고 털어냈다.

galaxy98@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장 오순남', 박시은X구본승에 샘 해밍턴까지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훈장 오순남' 박시은과 구본승이 톰과 제리처럼 티격태격하는 커플로 재회했다. 여기에 한수연과 장승조, 신이와 샘 해밍턴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캐릭터로 드라마에 재미를 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훈장 오순남'은 서당의 여자 훈장으로, 종갓집 며느리이던 한 여자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뒤 딸의 꿈을 대신 이루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박시은은 9세에 종택 적현재에 들어와 집안의 종손과 결혼해 딸을 낳게 된 오순남 역을, 구본승은 요식업 프렌차이즈로 성공한 위커피홀릭 강두물 역을 각각 맡았다.

박시은과 구본승은 이번 작품으로 오랜만에 재회했다. 박시은은 "구본승과 두 번째로 커플이 돼서 출연하는 드라마"라며 "그전에도 코믹하고 재미있는 커플이었는데 이번에는 톰과 제리 같은 느낌이다. 초반에도 코믹한 부분도 많고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이번 호흡이 더 잘 맞는 거 같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샘 해밍턴도 정극 연기에 처음 도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극 연기에 처음 도전한다. 이재용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계속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람도 발음하기 힘든 발음을 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촬영하면서 멘붕이 한 번 제대로 왔는데 다행히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고백했다. "잘 지켜봐달라"는 당부로 이번 활약을 기대케 했다.

aluemchang@new1.kr

티보플레이 4월 4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빛나라 은수 |
| 2 | KBS | 아버지가 이상해 |
| 3 | MBC |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
| 4 | KBS | 이름 없는 여자 |
| 5 | MBC | 당신은 너무합니다 |
| 6 | SBS | 아임쏘리 강남구 |
| 7 | SBS | 갯속말 |
| 8 | MBC |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
| 9 | MBC | 행복은 주는 사람 |
| 10 | MBC | 훈장 오순남 |

티보플레이 4월 4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훈장 오순남 |
| 2 | KBS | 이름 없는 여자 |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 | | | |
|---|------------|-----|
| 1 | 밤의 해변에서 혼자 | 김민희 |
|---|------------|-----|

'이름 없는 여자' 배종옥, 오지은 찾아 교도소行

(서울=뉴스스타) 장수민 기자 = '이름 없는 여자'의 배종옥이 오지은을 찾아 나서며 복수를 감행했다.

2일 방송된 KBS 2TV 저녁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7회분에서는 자신의 아들 해성에게 골수이식을 해주지 않았던 손여리(오지은)에게 긴 시간 앙심을 품은 홍지원(배종옥)의 모습이 그려졌다.

아들 해성의 백혈병이 재발하자 여리의 골수가 또다시 필요했던 지원. 그는 불법 체류자였던 남성을 협박해 여리를 잡아오게 했지만 여리는 그에게 시멘트 가루를 뿌렸고 남자는 발을 잘못 디며 추락사했다. 이에 여리가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고 여리는 일부러 김무열(서지석)아이를 낳기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로 교도소에서 딸 봄이를 출산했다. 오랜시간 김무열을 짝사랑한 지원의 딸 구해주(최윤소)는 김무열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이들은 결혼을 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구해주와 손여리는 같은 날 무열의 아이를 모두 출산했다.

jim928@new1.kr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신영의 **세상 스케치**

59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토지' 작가 **故 박경리**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2008년도에 정리했던 글을 다시 나누며...)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흥분하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인 일일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는지도 모를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故 박경리** 선생(82)의 타계 소식에 어머니를 여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다. 아마도 우리 모두의 어머니일 것이다. 한 시대를 어우르던 한 소설가 이전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와 슬픔을 안고 자란 외로운 한 여인의 딸이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행복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들을 잃고 딸 하나를 키우는 슬픔에 젖은 한 여인이었다.

"모진 세월 가고/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흥분하다." 이번 작품은 '현대문학' 53주년을 맞아 발표한 박경리 선생의 마지막 발표작(월간 현대문학 2008. 4)이다. "옛날의 그 집"에서의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흥분하다"의 시편은 80여 년의 한평생 삶을 진실하게 살았던 삶의 노래이다. 삶이 그대로 글이 되어 울림으로 남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서 막걸렸던 노래인 것이다. 어찌 순탄한 삶이었을까. 삶이 고달프고 힘겹기에 깊은 생각과 마주하고 그 생각이 또 하나의 펼쳐진 작품의 세계를 열 수 있었으리라. 이처럼 가슴의 크고 높고 넓은 하늘 같은 꿈을 마음의 텃밭에 키우며 한평생을 일구고 가꾸며 살아온 삶이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답다.

이별은 언제나 슬픔을 남긴다. 또다시 만나는 기약이 있다 해도 지금의 이별이 슬픈 것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의 모습일 것이다. 박경리 선생은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문학의 지평을 마련했으며 터를 제대로 잡는 기둥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대하 소설 '토지'를 통하여 자화상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묻고 또 물었으며 역사 속에 함께 걸어가는 큰 가슴을 서로

나누게 한 것이다. 작은 여자의 몸으로 큰 가슴을 키우며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슬픔'을 만난다. 너무도 외로웠을 한 여인의 삶을 엿보며 슬픔이 자국으로 남은 그리움의 글에서 자꾸 슬퍼지는 것은 어인 일일까. 박경리 선생이 '현대문학' 2008년 4월호에 발표한 '옛날의 그 집'과 '어머니' 그리고 '까치집'을 살펴보면 더욱 애잔한 그리움을 만난다.

선생은 미리 운명을 예감하였을까. 선생은 어머니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던 모양이다. 그의 마지막 작품 발표 시에서 '어머니'의 시편은 더욱 그렇다. "고향 옛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꿈에서 깨면/아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마치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라고 어머니 그리운 마음을 적었다. 그토록 박경리 선생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사랑스러운 딸을 둔 한 어머니였다. 언제

나 소박하고 겸손했던 성품은 생활에서 만나는 그 모습이었다. 후배 문인들이 선생을 찾아 토지문학관에 들르면 언제나 텃밭에서 당신이 손수 일구고 키운 푸성귀로 손수 밥상을 챙겨주셨다고 한다.

박경리 선생은 옛집 터에 마련된 토지문학공원에서 노제를 지내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고향인 경남 통영으로 향한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 경남 통영의 '미륵산 기슭의 양지공원'에 잠들게 된단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두둥실거리고 초록 들만에 새싹들이 푸릇푸릇 오르는 오월. 하늘에서 내린 봄비로 촉촉이 젖은 땅에 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땅을 그토록 사랑하던 선생은 하늘처럼 높은 푸른 꿈과 하늘처럼 넓은 가슴의 희망을 안고 땅에서 살았다. 이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바람이 된 것이다. 박경리 선생은 가셨지만, 그분의 뜨거운 혼불은 남아 우리의 가슴에 오래도록 타오를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사과나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사과만큼 회자膾炙되고, 사랑받는 과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과일이다. 사과꽃과 벚꽃은 구별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사과가 달린다는 걸 내가 안다. 꽃은 구별할 수 없어도 선행先驗에 따라 그걸 인지認知하고 있는거다. 철학적 이야기 같기도 한데, 오늘도 다름없이 객설客說이다. 류시화 시인이다.

아주 가끔은/사과나무 아래 서 있고 싶다.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들이

두 팔을 벌리고 서있는/사과나무 받...
내가 아직 어린 소년이어도 좋고 사과나무처럼 늙은 뒤라도 좋으리 가끔은 그렇게/사과나무 아래 서 있고 싶다. (류시화, 사과나무)

중학교 때 배웠을 게다. 뉴턴과 만유인력의 법칙의 뒷 이야기이다.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는 거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도대체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의아해 했다. 아이들에게 과학을 쉽게 이야기 해준다고 했다. 아이들이 흑시 모두 사과나무 아래로 달려가는 사태는 없을 것인가? 아이들 모두 뉴턴을 넘어 류시화 시인이 되는 거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헛갈린다.

미국 중학교 과학시험 문항이다.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한 학생이 답했다. '사랑(Love)'. 당연한 듯 영점 처리됐다. 윤리시험이라면 옳은 답이었을 텐데 불행히 과학이었다. 중학교 과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중력重力이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마주보고 있는데, 학생의 답만 가특하다.

스티브 잡스는 왜 회사이름을 애플로 지었는가. 미국 어느 고등학생의 에세이이다. '어느날 스티브 잡스가 회사 이름을 짓느라 골몰하고 있었다. 잠시 머리를 식힐겸 사과 과수원을 거닐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다. 떨어진 사과는 벌레 먹은 사과였다. 울

지. 바로 이거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로고로 누가 한입 베어 먹은듯한 사과로 정했다.' 뉴우턴과 스티브 잡스가 적당히 섞여 융합이요, 통섭이요, 인문학적 발상이라 해야겠다. 학생의 시험답안은 기발한데, 반드시 황당하다 할 수만은 없다.

적당히 황당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했다. 가벼운 증세의 영똥한 사람들이다. 스피노자도 뭔가 달랐던 모양이다. 덕분에 유대인사회에서 왕따 당했다. 이번 한국대통령은 적당히 황당한 분인가? 세상을 당기는 힘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밀고 당기는 힘보다는 사랑이 먼저가 아닌가 싶다. 사과같은 사랑말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銀 쟁반에 금金 사과니라' (잠언 25:11)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inch Segment LCD Cluster Display, AM/FM/XM radio

FWD, Automatic, HQ11289




LEASE \$69/mo.	PURCHASE \$15,631	FINANCE 0.9% APR
--------------------------	-----------------------------	----------------------------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FWD, Manual, HQ11603




LEASE \$89/mo.	PURCHASE \$13,290	FINANCE 0% APR
--------------------------	-----------------------------	--------------------------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Heated Mirrors, Sirius XM Radio, Power Windows/Locks, Remote Keyless Entry

FWD, Automatic, HQ11525




LEASE \$119/mo.	PURCHASE \$12,798	FINANCE 0% APR
---------------------------	-----------------------------	--------------------------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Pkg, Blindspot detection, Rear cross traffic alert, HTRAC AWD

AWD, Automatic, HQ11680




LEASE \$419/mo.	PURCHASE \$45,500	FINANCE 1.9%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

AWD, Automatic, HQ11629



LEASE \$129/mo.	PURCHASE \$23,527	FINANCE 0.9% APR
---------------------------	-----------------------------	----------------------------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ers Blind Spot Mirror, 5 inch Color Touchscreen Audio, Rearview camera

FWD, Automatic, HQ11289




LEASE \$175/mo.	PURCHASE \$20,248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Rearview Camera, 16" Alloy Wheels, Bluetooth, Sirius XM

FWD, Automatic, HQ11830




LEASE \$129/mo.	PURCHASE \$18,197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

AWD, Automatic, HQ11442



LEASE \$189/mo.	PURCHASE \$29,003	FINANCE 0% APR
---------------------------	-----------------------------	--------------------------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을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8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최고의 전문가 “아는 사람”

우리 한인사회의 최고의 의학 전문가는 의사가 아니다. 최고의 경제 전문가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최고의 진학 전문가도 진학교사가 아니다. “아는 사람” 이 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지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아는 사람” 은 늘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고, 언제나 최상의 투자로 최대이익을 올리며, 자식들은 항상 최고의 대학에 진학시킨다. 물론 학원 같은 곳은 보내지도 않고 학교수업에만 충실한 결과라고 한다. 최고급 자동차와 명품 사치품들도 대박 세일의 가격으로 손쉽게 구입한다. 가끔식 로또 1등에 당첨되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한다.

종종 걸려오는 문의 전화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요...” 로 시작한다. 다른 전문 직종은 몰라도 주택용자, 부동산 부분에서는 “아는 사람” 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유포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아는 분이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근무할 때 일이다. “아는 사람” 이 낮은 이자율로 수수료 없이 집값보다 더 많은 액수를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용자 받았다고 어느 손님이 전화가 왔다. 그분이 아무리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도, “제가 아는 사람이 틀림없이 했는데요!” 라고 항의했다. 그래서 결국 그분에게 물었다.

“그 아시는 분이 주택용자 전문가 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그분이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근무하시는가요?” “아니요” “그럼 손님께서는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택용자 사업부 부사장이 아니라고 해도 안 믿으시나요?” “그래도 했다는데...” 하면서 끝까지 “아는 사람” 의 신용을 저버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또 다른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

“아는 사람” 이라는 현상은, 인간이 나쁜 소식이나 비관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심리에서 생긴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아는 사람” 은 가능했기 때문에,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라고나 할까. 때로는 현실을 빨리 직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테지만, 나약한 인간이기에 “아는 사람” 의 소문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너무 직설적이고 차가운 말이겠지만, “아는 사람” 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소시민들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전문가들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겨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현대사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도 없이 전문가의 견해를 제공하는 “아는 사람” 은 제발 사라져도 괜찮은 분들이다. 전문가

들이 “아는 사람” 들과 전문지식의 옳고 그름을 주장해야하는 우리의 커뮤니티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주택시장은 편견이 현실일 경우가 많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우기면, 옳다고 믿겨지는 경우도 많다.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저렇게 큰소리로 주장할까?” 조카가 유치원에 다닐때, 하루는 유치원에서 어느 아이가 흠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다. 어른들은 우스워서 “정말로 오늘 유치원에서 흠먹고 죽었어?” 라고 했더니,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했다고, 울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유치원 선생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시켜줬지만... 사실을 편견과 싸우기는 5살이든지, 50살 이든지 쉽지가 않다.

오늘도 전화가 왔다. “제가 아는 사람 말로는 요즘은 다운페이 없고, 크레딧 나빠도, 셀러가 돈까지 주면서 집을 살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 “아는 사람” 을 꼭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 미국에 사는 교포분들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이 미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그럼 부동산 전문가란 누구일까? 앞서 말했지만 하루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현대 사회에서 큰 부동산 회사에서 매일 나오는 최신 정보와 교

육을 받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야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절대로 Part Time이란 없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누군가 집을 사고 팔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 많아야 한다. 어찌 어느 모임에서 어느분 하나가 보스톤에서 제일 오래 하셨지요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랬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난 아직 배움에 목 마르다.

고객들에 더 좋은 투자를 위해서 오르고 또 올라야 한다는게 나의 삶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7 화랑세기花郎世紀, 6세 풍월주風月主 세종世宗(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실이 여러 미녀들과 함께 입궁하여 화랑의 사표 세종전군의 정처로 간택되는 장면이다. 유명한 사람은 항상 출생의 신화를 가지고 태어나는것 같다. 미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실의 외할머니인 옥진공주, 법흥왕의 후궁으로 있던 그녀가 하루는 꿈에 칠색조가 나타나 자신의 품으로 들어 왔다면서 왕과 동침하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왕은 이는 빈첩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남편인 박영실과 합하기를 명했다. 그리고 왕은 왕자이면 태자로, 딸이면 후궁으로 삼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태어난 아기가 딸 묘도이다(묘도부인은 너무 어린나이에 법흥왕의 후궁으로 들어와 제대로 왕을 받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옥진의 꿈에 또 칠색조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묘도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묘도의 거처를 찾아가 보니 딸 묘도는 남편 미진부와 함께 있었다. 옥진은 그들에게 귀한 딸을 낳을 것이라 하였고 이렇게 태어난 예언의 아이가 미실이다.

미실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용모가 절묘하여 풍만함은 옥진을 닮았고, 명랑함은 벽화를 닮았고, 아름다움은 오도를 닮아서 벽화의 영감을 뭉쳤고, 세 가지 아름다움의 정기를 모았다고 할 수 있다(화랑세기 11세 풍월주 하종조)’. 옥진은 미실의 외할머니이며, 벽화는 미실의 증조할머니이고, 오도는 옥진의 어머니이다. 세명 모두 당대의 가장 미인들 중의 한명이었다. 법흥왕은 옥진의 미

모에 빠져 자신의 총신 박영실의 부인이 된 그녀를 결국 후궁으로 삼았다. 벽화는 비처왕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못잊어 경주에서 날이(현 경북 영주)까지 변복을 하고 몇 차례 왕래를 하다가 결국 왕궁으로 데려와 후궁으로 삼았다. 오도 역시 법흥왕의 후궁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다. 옥진은 오도의 딸이다.

이렇게 대원신통의 미색의 정기를 타고 태어난 미실은 3대 왕(제 24대 진흥왕과 그의 아들 제 25대 진지왕 그리고 진흥왕의 장자 동륜 태자의 아들 제 26대 진평왕에 이르기까지)에 걸쳐 색공을 했다. 아울러 미실의 권력은 왕권에 버금하면서 정치는 물론 진지왕의 올림과 폐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미실의 아버지는 미진부이고 어머니는 묘도부인이다. 미진부의 부모는 아시공과 삼엽공주이다. 묘도는 아버지가 박영실이고 어머니는 옥진공주이다. 또한 진흥왕의 비 사도왕후와는 자매지간이다. 박영실의 부모는 수지공과 보현공주이다. 옥진의 부모는 위랑과 오도이며, 오도의 어머니는 비처왕의 비인 선혜왕후인데 중릉 묘실과 사통하여 오도를 낳았다.

세종전군이 미실을 가장 좋아하였지만 지소태후는 탐탐치 않게 생각하였다. 미실이 자신의 계부인 박영실의 외손녀이기 때문이었다. 지소는 아버지 법흥왕의 명에 따라 계부 영실공과 결혼했지만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계다

가 미실이 대원신통의 인맥(姻脈)이었기에 자신의 진골정통으로 인맥을 이으려한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이기도 했다. 지소태후는 진흥왕의 의견을 따라 미실을 며느리로 맞는데 세종의 생부인 태종의 의견도 들어 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태종은 왕실의 대사라면서 말을 아꼈다. 동시에 혼인을 함으로써 영실공과 관계도 회복되고 또한 사도왕후(진흥왕의 왕후, 박영실의 딸, 미실의 이모)도 기쁘게 할 것이라며 결혼에 찬성하였다. 그런데 이 때의 역사적인 배경이 561년 봄이나 여름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진흥왕23년과 권44, 열전4, 사다함)와 화랑세기(4세 이화랑, 5세 사다함, 8세 문노 등)에 보면 561년 9월에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태종으로 하여금 진압케 하였다. 여기에 어린 사다함(15.6세 가랑)이 참전을 간청하였기에 왕이 태종의 귀담비장으로 임명하여 참전을 허락하였다. 이때 사다함의 연인인 미실이 지소태후에 의해 출궁되어 있다가 이별의 아픔을 담아 ‘송출정가’를 불러 사다함을 위로하였다. 미실이 또 다른 많은 미녀들과 궁에서 생활하다가 세종의 배필로 낙점을 받았지만, 지소의 미움을 받아 출궁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회에 이어진다). 그리고 사다함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해가 가기전에 승전고를 울리며 개신하였다. 왕경으로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연인 미실은 이미 세종전군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출판사와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공공은...와 더불어... 몇 달 앞섰다. 태후는 시험 삼아 공경公卿의 미녀들을 택하여 궁중에 모아 두고 공이 누구에게 마음이 향하는가를 보았다. 공은 미실낭주를 가장 좋아했다. ... 태후는 이에 제후에게 물어 말하기를 “미실의 아름다움이 전군殿君에게 ... 합니까?” 했다. 제후 또한 아름답게 여겨 말하기를 “오직 어머니가 정할 바입니다. 단... 태종恭宗 노신이 알지 못해서 ...” 했다. 태후 또한 그렇게 여겼다. (이에 태종을 불렀다) 미실로써 의논하여 말하기를, “며느리를 얻는데 지아비에게 의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다. 태종이 말하기를 “폐하의 집안일에 어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했다. 태후가 말하기를 “이 처녀는 곧 영실英實의 손입니다. 나의 우군右君으로 영실은 나에게 잘못이 많았기에 꺼렸습니다. 그리하여 좋아하지 않게 되어 결정하기 어려우나 되어 묻는 것입니다” 했다. 태종이 말하기를 “영실은 (법흥왕의) 총신입니다. 유명遺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전군이 이미 좋아한다면 또한 황후(사도思道)를 위로할 수 있으니 옳지 않겠습니까?” 했다.]
미실美室,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미

보스톤에서 한국전화번호를 사용하자!

엄마!
617 미국번호 아닌
013 한국번호로
전화해 ♥♥♥

분당: 5¢ (60원)
월 사용요금:
\$1.50 (1500원)



쉽고 편리한 국제전화!
013LTE



가입 문의:

617.955.9112

161 Harvard Ave. #13, Allston, MA 0213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克 (극)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Since you died with Christ to the elemental spiritual forces of this world, why, as though you still belonged to the world, do you submit to its rules"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Such regulations indeed have an appearance of wisdom, with their self-imposed worship, their false humility and their harsh treatment of the body, but they lack any value in restraining sensual indulgence"- 골로새서 2: 23, 23

미국 해군은 5일 항공모함 칼빈슨 호와 한국 해군의 연합훈련 장면을 페이스 북에 공개했다.

미 해군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核)실험 등 군사도발을 못하게 미국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칼빈슨 호를 가운데로 좌우(左右)에 한미 양국 함정을 가동했다.

칼빈슨 호에서 FA-18 호넷 전투기들이 출격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측에서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 함과 한국형 구축함 양만춘함이 동참했다.

미국 측에선 칼빈슨 호와 함께 구축함 웨인 E. 메이어 함, 마이클 페고 함, 스테덤 함, 유도미사일 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 함 등이 한반도 해역에 들어왔다.

현 상황의 연장선에서 보면 다음 대통령은 전 민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 원로 고문인 김대중 고문의 결론이다.

좌파 지도부의 일관된 기획과 전략으로 짜인 준비성과 두 번째 도전에 따른 지명도에 '때마침 님쿨째 굴러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가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를 불어줘서다.

10년 주기로 이어온 보수 우파 대 리버럴 좌파의 정권 교체 바람도 타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수층의 분열이 좌파의 단결을 이뤄준다는 것.

보수층은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낮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씨 대통령 행(行)에 날카롭게 반응한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 로 대표

되는 문재인 씨의 안보외교 정책은 보수 중도층에는 기존 생활 질서를 뒤엎는 혁명이나 다름없어서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혁명의 창출로 여겨서다.

해서 보수성향의 국민은 그것만은 막아야겠다는 것이고 "태극기 집회" 는 그 같은 의사의 발로로 봐야한다.

문제는 여권주자들이 이같이 보수층의 절실하고 열렬한 반문(反文: 문재인)정서를 바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

文씨에 맞서 싸우려면 文씨를 두려워하고 그의 노선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파고 들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文씨의 대적점에 서서 '文재인 아닌 것' 즉 "Anything but Moon" 의 길로 가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흔들리는 보수층은 박 대통령이 밟더라도 그가 추진해 온 안보노선, 반(反)북노선은 승계하겠다는 '용기 있는 지도자' 를 원하고 있다.

文씨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는 범(汎)보수 후보들의 단일화다. 혼자 힘으로는 文씨의 집권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여권 또는 보수층을 대변하는 주자들은 과감히 한사람에게 힘을 모아 줘야한다. 지난 세월 단일화는 주로 야권의 무기였다.

정확한 의미의 단일화는 아니었지만 김대중은 김종필과 손을 잡고 이른바 DJP연합으로 대통령이 됐고, 노무현은 정몽준의 사퇴(투표전날 노무현 지지를 철회했지만)로 승리했다.

반면 이회창은 YS계와의 불화로 이인제와 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패배했다.

4년 전 이기진 못했지만 문재인은 안철수와

단일화에 성공해 박근혜와 근접전을 벌였다.

10년 전 대선 때 새누리당은 '읽어버린 10년' 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克극: 勝也 승야: 이길 극

①十: 數名 수명: 열 십. 단순히 가로 (一), 세로 (丨) 일자를 합하면 열 십(十). 이 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한 도구(道具)일 때인 간과의 관계는 깊다.

산 사람에 十는 ①하나님을 사랑 (一) ②이웃사람을 사랑 (一), 즉 기독교 전체의 신분증(ID)을 뜻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 마태복음 22장 37-40.

결국 마태복음 22장 37-40절이 기독교의 상징인 十를 그리고 있다.

이 十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죄(罪)없으신 분이 죄 있는 듯이 대신(代身)지신 것은 모든 크리스천(Christian)들이 남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게 길을 터 주신 것.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통해 "이웃의 죄를 용납하고 사(赦)해 주는 것"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증거" 로 돼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赦)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 마태복음 6:12.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전제(前提)조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罪)지은 이웃을 먼저 용서해서 무죄(無罪)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내 죄가 청산되지 않는다" 는 엄청난 사랑이 전제조건으로 돼있다.

이 구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主祈禱文)에 포함된 것은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어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임마누엘 (Immanuel), 곧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데 죄 값을 치르신 것" 을 증거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죄(罪)를 사함 받기 전에 남의 죄를 사해 줄 자격이 없다" 는 것.

이 관계가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내안에 성령님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말을 바꾸면 예수 이름을 믿는 성도(聖徒)가 하나님 아버지 식구(食口)임을 증거하는 증표(證票)가 이웃과 형제자매의 잘못을 대신 질 줄 알아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영(靈)이신 성령님이 동거(同居)하심을 증거하는 생활" 을 보일 수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시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He (Jesus Christ)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 요한복음 20:22,23.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력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리즌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6년 Auto body work!!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당신의 가장 현명한 선택

오엘 성형외과

성형 전문의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고객맞춤형 시술&수술 진행

- **토털 케어 시스템** 오엘성형외과에 오신 시점부터 상담, 수술계획, 마취, 수술, 회복관리까지 공평한 상담, 정확한 진단으로 만족도 높은 진료가 가능합니다.
- **안전함이 최우선인 진료** 대리수술 NCR 대표원장이 직접 수술하는 정직한 진료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오엘의 약속입니다.
- **새로운 수술법 연구**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프렌드인 미용 성형의 최신 정보를 받아들여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품격 있는 의료서비스** 병원과 환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생고객서비스를 통해 모든 환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직한 진료** 개별적인 관찰과 탐구를 통해 개인별 맞춤 디자인과 치료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정직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엘 성형외과 휴람이벤트]

눈·코	성안검 170만원 → 150만원	이물질제거	입술(역피) 300만원 → 240만원
	눈썹허가상 170만원 → 150만원		미간 300만원 → 240만원
	하안검 170만원 → 150만원		부분 300만원 → 240만원
	하안검+눈썹지방재배치 250만원 → 170만원		코 300만원 → 240만원
	명품 코(귀연골+실리콘) 240만원 → 220만원		팔자제 400만원 → 320만원
안면거상	플래이스 리프팅 800만원 → 500만원	이마 400만원 → 320만원	
	관자+염분+목리프팅 800만원 → 600만원	가슴 800만원 → 640만원	

모발이식

- 여성 헤어라인 1,000모 → 100만원
- 여성 헤어라인 2,000모 → 200만원
- 남성 모발이식 3,000모 → 350만원
- 남성 모발이식 4,000모 → 450만원
- 남성 모발이식 5,000모 → 550만원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이 성형, 미용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출국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원 대표원장

- [학력]
- (현) 오엘성형외과 대표원장
 - Henry Hinds Middle School
 - Lawrence Sheriff Grammar school, Rugby, England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 [경력]
- 삼성의료원, 삼성제일병원 인턴 수료
 - Matsuyama Cosmetic Surgery Center 부원장 역임
 - 한일병원 화상외과 연구소, 성형외과 과장 역임
 - Cheng Gung 병원 두개안면기형 연수
 - Beverley Hills, Camden Surgery Center 연수
 - Juve Aesthetic Surgery Center 대표원장 역임
 - 아름다운 성형외과 원장 역임



해외의료사업팀장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김수남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84) 원금보장과 평생연금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미국 돈 \$100 지폐에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피뢰침, 바이포컬 안경, 스토브 등 많은 물건을 발명했습니다. 만인이 사용하는 이러한 발명품에 프랭클린은 특허(Patent)를 내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내었다면 많은 부를 축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 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클린의 많은 발명품 외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말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세상에 보장되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라는 말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당신의 투자 원금을 보장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여러분의 투자 돈도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몇 퍼센트 수입을 보장합니다." 어뉴어티를 파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면 은퇴한 분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말입니다. 여기에다 원금도 보장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목돈 \$500,000을 투자할 때 파는 사람이 수수료(Commission)로 8%를 부과한다면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겠습니까? \$500,000의 8%는 \$40,000입니다. 월 스트리트 재정신문에 의하면 어뉴어티의 평균 수수료가 8%라고 말합니다. 어뉴어티가 매우 비싼 금융상품이라고 언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월 스트리트에 나온 기사(New Rule's Nest Target: Annuities, 2-9-2016, WSJ)를 인용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는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며 발생하는 수수료와 경비 등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 결정합니다. 사실 이것은 투자자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어뉴어티를 파는 사람이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뉴어티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일부 보험인은 자기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왜 이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투자자가 투자했기에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모든 경비를 제하고 수익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더(Rider) 경비 등을 포함해서 약 3%를 매년 부과한다고 신문에서 말합니다. 어뉴어티에 투자한 고객의 돈은 뮤추얼 펀드(Sub-Account)에 투자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자한다면 수수료 8%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부과되는 3%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뉴어티를 통해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며 주식시장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어뉴어티 선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은 사실이 아니다. (Too good to be true)" 라는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에게 정말 좋은 투자라면 파는 사람이 수수료와 경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프랭클린 말처럼,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뉴어티에서 말하는 원금 보장, 평생 생활비 보장, 고수익 보장, 등 '보장' 이라는 말에 투자 결정합니다.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이 "보장(Guarante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Life's Tragedy is that we get old too soon and wise too late. (인생의 비극은 나이는 빨리 먹는데 살아가는 지혜는 뒤에 머무른다.) - 벤저민 프랭클린의 충고 말입니다.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와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3)

- 비거주자는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 못 받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한국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세금 계산시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나요?

한국의 세법은 '한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한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거주자의 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한국의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일부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의외의 자에 대한 공제
- 특별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미국의 세법도 한국의 세법과 유사하게 거주자(resident alien)에게는 적용되지만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거주자의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

급여 등)에 대한 세금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면서, 비거주자는 부합산신고를 못하게 하여 불리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거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일정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하며,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즉,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등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가족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규정 중 비거주자 본인과 관련된 공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중 '본인공제'와 추가공제 중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공제',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 그리고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 '부녀자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습니다.

특별소득공제란?

인적공제	비거주자 적용여부
1) 기본공제	
- 본인공제	O
- 배우자공제	X
- 부양가족공제	X
2)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O (본인만)
- 장애인공제	O (본인만)
- 부녀자공제	O (본인만)
- 한부모	X

<표 1>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에는 ①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공제와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이러한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자녀가 몇 명인지,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당해연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① 다자녀세액공제
만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2명까지는 1인당 연15만원, 3명째부터는 1인당 연30만원
- ② 6세이하 세액공제
6세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

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③ 출생입양공제
당해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30만원
그러나 비거주자는 이러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특별세액공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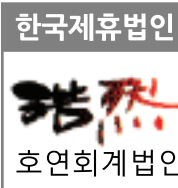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의 지출액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는데, 이를 특별세액공제라 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이러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이어서 비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통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처리 방법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외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비용)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비용)로 차감하는 방법이란 기부금을 급여나 임차료 등과 같이 사업관련비용으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출한 기부금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는 받을 수는 없지만, 그 기부금이 한국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일정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5월은 한국의 종합소득신고의 달입니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마이클 리 (Michael Lee, 978-314-8818)
 Insurance Broker, mlee.insurance@gmail.com
 - License in Health, Life, Series 6,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 Health/Life/Annuities/Medicare/Disability/Group Benefit/Reinsurance 전문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 NMLS # 1464242 / Real Estate License No. 9534498
 - Government & Conventional Residential Loan

Mortgage 2

집찾기 전 모기지 준비

봄이 다가오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바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거나 이주를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브로커를 만나고 집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그 후에 재정적인 부분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모기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생각치 못했던 부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모기지입니다. 용자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과연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지, 내가 생각하는 다운페이먼트가 맞는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집을 찾기 시작하며 모기지를 먼저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주 드뭅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장의 동태를 살피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시에 모기지를 차차 진행하더라도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홈바이어들은 리얼터를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지역의 집을 찾아보기 시작하게 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되면 허겁지겁 융자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용자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수입, 지출, 부동산 등 모든 부분을 대출자가 아닌 채급자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는 수입입니다. 지금 나의 수입으로 내가 원하는 금액의 용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

터넷에 들어가 모기지 계산기를 사용해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대출자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수입은 채급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인정될 수 있는 수입은 모두 서류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반 W-2 월급직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나 이외 기록되지 않는 현금일(Job)이나 경제적으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 대출자의 공식적인 수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로 용자 가능성의 유무 또는 장만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사자가 회사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회사의 이익이 인정되는 반면, 손해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체는 수입과 지출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일어나기에 결과적인 이윤과 손실(Profit & Loss)도 회계사의 세금보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은행계좌와 소유물 등도 증명을 해야하기에 특히 융자신청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계약서에 동의한 Closing 날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시작할 때의 예상과 달리 심사중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관련해 다른 중요한 부분은 다운페이먼트입니다. 다운페이먼트 역시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은행계좌와 같은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야 하며 현금도 출처를 증명해야 하기에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행을 믿지않고 현금을 중요시하는 성

향의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Gift Fund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지만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 그 자신의 출처역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발란스(잔고)와 송금한 내역이 보여지는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첨부해야하며 송금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일경우 이런 부분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금을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해야 할 경우 Offer Letter, Closing 날짜등도 제출해야하며 반드시 새로운 집의 모기지 시작 날짜전에 대금이 치뤄져야합니다. 만약 이전 모기지 기간이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모기지와 중복될 경우 기존에 소유한 것과 새로 구입하는 집의 모든 부채가 채무자의 책임으로 심사되어집니다.

꼭 기억해야하는 또 다른 부분은 수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지출 또는 부채입니다. 이와 관련된 채무상환능력(Ability to Repay)은 채급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은 일반적으로 수입만으로 판가름할 수 있으나 채급자의 입장에서 대출인의 소비성향은 크레딧 리포트를 기반으로 보여지는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을 기준으로 합니다. 크레딧 리포트는 크레딧 점수 외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채 히스토리를 기록함으로써 크레딧카드, 자동차론, 학자금 대출등 최근 리포트된 잔액을 보여주고 최근 크레딧을 확인한 기록, 예를 들어 자동차 파이

낸스 등 모든 부분의 관련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총 발란스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의 월납료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며 차마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기록이나 아직 남아있는 채무징수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피고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친지나 친척의 연서인(Co-Signer)이 되어준경우 기록이되기도 하며 실제적인 부담이 없더라도 만약의 경우 책임이 전가되기에 채급자의 입장에서 대출자의 책임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역시 대출여부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준비된 결과물 이라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기지를 준비하며 Pre-Qualification, Pre-Approval을 받으신 후 희망하는 부동산에 구입하고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진 후 인스펙션과 감정평가(Appraisal)를 받게됩니다. 인스펙션은 구입자의 자율이지만 감정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구입가격이 현시장가와 비교해 타당한지를 판가름합니다. 감정평가는 시장동태도 고려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주택용자를 받기위해서는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찾는 것도 끝없는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내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춤탈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H-1B 대안, 송동호 종합로펌과 상의하세요!

H-1B가 다가가 아니다!

O 비자

E 비자

P 비자

영주권

H-3

NIW

매력녀, 그래픽 디자이너 윤아
차도남, 공인회계사 공유
핫한 인스타그램 스타, 패션 디자이너 소미
훈남, 건축 디자이너 현빈

모두 H-1B 추첨 탈락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H-1B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주거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개인 우편서비스(프랜차이즈 아님) 연매상 \$550,000
100% 소유자 부재 중 경영, 높은 순수익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 혼자 경영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450,000+ 주 6일 영업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9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08,000 20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섬머캠프 활동

Special 섬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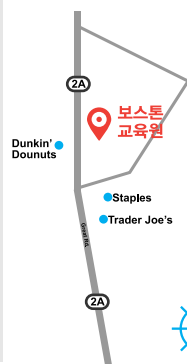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믿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